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2-01

연구보고 08-R14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연구Ⅲ

책임연구원 : 문경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민경석(세종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임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이선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8-22-0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게이오대학교, 연세대학교, 비엘레펠트대학교, 남스톡홀름대학교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광주대학교, 부경대학교, 고신대학교, 건국대학교, 뮌헨시교육연구소(독일), 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울살라대학교(스웨덴), 스밀라인터내셔널(스웨덴)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경숙 연구위원 김현철 연구위원 김지연 연구위원	민경석 교수 (세종대학교)
협력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김혜영
	게이오대학교	와타나베 히데키 교수	마쓰다 시게키 오자와 마사유키 배지혜
	연세대학교	박순용 교수	노경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비엘레펠트대학교	Gudrun Quenzel 교수	Janina Herrmann
	남스톡홀름 대학교	최연혁 교수	Liva Alonso Hedvid Jensmar

연구 요약

사회화란 한 사람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회화란 사람이 사회적인 인격체로 되어 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혹은 부모), 친구, 학교(혹은 교사)가 청소년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연구로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살펴보고 원활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청소년의 사회화를 진단함에 있어서 타 국가 청소년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청소년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타 국가 청소년의 사회화의 현재 모습을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사회화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 받을 수 있었다.

3개년 연구의 마지막 연도인 2008년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대도시와 수도권에 국한된 표본을 이용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남녀 청소년의 성차와 아버지의 학력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더 세분화하였다. 양적인 분석에 더하여, 2008년에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5개국에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일관성을 꾀하였다. 아울러 2년간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드러난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에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청소년과 저소득 계층 청소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2008년 연구에서는 각 국의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각 국의 교육·가족·청소년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부모-자녀 관계를 지지, 억압, 통제, 갈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미국, 스웨덴, 독일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부모와 갈등구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다른 상대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어머니 통제에서 미국이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정의 청소년이 어머니의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성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독일과 스웨덴이 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독일의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의 지지를 더 많이, 스웨덴의 여자 청소년이 양 부모와의 갈등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친구 관계는 배려, 친밀, 의존, 소외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청소년이 배려, 친밀, 의존에서는 가장 높게, 소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비교 국가 중 가장 원만한 양상을 보였고, 이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낸 집단이 일본 청소년으로써, 배려, 친밀, 의존은 가장 낮게 소외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 청소년은 친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소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친구관계 속에서 높은 친밀감과 높은 소외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미국 청소년이 의존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성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배려와 의존에서는 4개국 모두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높았고, 친밀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 미국, 스웨덴에서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높았다.

교사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정도와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상담친밀성은 조사 대상국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그 중에서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교사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이 교사 선호 이유의 각 영역에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응답 비율이 매우 낮았다. 아버지의 학력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정의 일본 청소년이 친밀도와 상담친밀도가 높았고, 스웨덴은 상담친밀도만 높게 나왔다. 일본은 성차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교사와의 친밀도가 더 높았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추진경위	4
1) 국제학술대회 참가	4
2) 연구포럼 및 국제심포지엄	5
3)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협동연구	5
4. 보고서의 구성	6
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6
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일반계층 청소년과 저소득계층 청소년 비교연구」	6
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 교육·가족·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자녀 관계	11
1) 부모의 양육행동	11
2) 부모와 상호작용의 영향	13
3) 가정생활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15
2. 친구관계	17
1) 친구수와 관계	17
2) 친구관계의 특성	19
3) 미디어와 친구관계	21
3. 교사와의 관계	23
1) 교사와의 친밀도	23
2) 교사에 대한 만족도	25
3) 학교생활만족도	26
4. 성별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사회화	27

III. 연구 방법

1. 조사 개요	33
1) 연차별 연구방법 개요	33
2) 2008년 연구방법	35

IV. 주요 연구 결과

1. 부모자녀관계	40
1) 지지와 억압	40
2) 통제와 갈등	45
2. 친구관계	50
1) 밀도	50
2) 친한 친구의 소속	53
3) 친한 친구와 함께 하는 장소	58
4) 친구 관계의 특성	65
3. 교사-학생 관계	72
1) 친밀도	72
2) 교사에 대한 선호도	74
4.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만족도	76
1)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76
2) 만족도	78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85
1) 부모-자녀 관계	85
2) 친구관계	86
3) 교사와의 관계	87
2. 정책제언	89
1) 부모-자녀 관계	90
2) 친구관계	92
3) 교사와의 관계	95

참고문헌	97
------------	----

부 록	105
-----------	-----

표 목차

<표III-1> 3개년 조사 개요	33
<표III-2> 2006, 2007 설문 조사 표본 수	34
<표III-3> 2007, 2008 질적 조사 표본 수	34
<표IV-1> 분석에 사용된 표본	39
<표IV-2> 분석에 사용된 표본(성별, 부의 학력) (2006(2007))*	40
<표IV-3> 부모-자녀 관계 문항	40
<표IV-4> 아버지 지지	42
<표IV-5> 어머니 지지	42
<표IV-6> 아버지 억압	43
<표IV-7> 어머니 억압	43
<표IV-8> 아버지 통제	45
<표IV-9> 어머니 통제	46
<표IV-10> 아버지 갈등	46
<표IV-11> 어머니 갈등	47
<표IV-12> 밀도 계산 방법	50
<표IV-13> 친구관계 밀도	51
<표IV-14> 친구 수	52
<표IV-15> 같은 학교 친구	54
<표IV-16> 같은 반 친구	54
<표IV-17> 같은 동아리 친구	55
<표IV-18> 같은 학원 친구	55
<표IV-19> 같은 종교 친구	56
<표IV-20> 인터넷 상의 친구	56
<표IV-21> 기타	57
<표IV-22> 학교에서 같이 보내는 비율	59
<표IV-23> 학원에서 함께 보내는 비율	59
<표IV-24> 종교기관에서 함께 보내는 비율	60
<표IV-25> 동아리에서 보내는 비율	60
<표IV-26> PC방에서 보내는 비율	61
<표IV-27> 노래방에서 보내는 비율	61

<표Ⅳ-28> 오락실에서 보내는 비율	62
<표Ⅳ-29> 쇼핑물에서 보내는 비율	62
<표Ⅳ-30> 음식점에서 보내는 비율	63
<표Ⅳ-31> 도서관에서 보내는 비율	63
<표Ⅳ-32> 공원에서 보내는 비율	64
<표Ⅳ-33> 기타장소에서 같이 보내는 비율	64
<표Ⅳ-34> 친구관계 문항	66
<표Ⅳ-35> 배려	67
<표Ⅳ-36> 친밀	68
<표Ⅳ-37> 의존	68
<표Ⅳ-38> 소외	69
<표Ⅳ-39> 교사와의 친밀도	72
<표Ⅳ-40> 상담친밀도	73
<표Ⅳ-41> 친구관계 만족도	79
<표Ⅳ-42> 학교생활 만족도	79
<표Ⅳ-43> 교사와의 관계	80
<표Ⅳ-44> 가정생활 만족도	80
<표Ⅳ-45> 생활전체 만족도	81

그림 목차

[그림 IV-1] 부모의 지지와 억압에 대한 인식	41
[그림 IV-2] 부모의 통제와 갈등	45
[그림 IV-3] 친구관계의 밀도	51
[그림 IV-4] 친한 친구의 소속	53
[그림 IV-5] 친한 친구와 보내는 장소	58
[그림 IV-6] 친구 관계의 특성	67
[그림 IV-7] 교사와의 친밀도	72
[그림 IV-8] 교사에 대한 선호도	74
[그림 IV-9]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76
[그림 IV-10] 만족도	7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추진경위
4. 보고서의 구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연구로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학교·또래집단 등 사회화 에이전트의 기능과 문제점을 국제비교를 통해서 밝혀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개년 연구의 마지막 연도인 2008년 연구에서는 1,2차 연도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결과를, 대도시와 수도에 국한된 표본을 이용함으로써 다시 분석하였고, 남녀의 성차와 부모의 학력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더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각국의 청소년들이 가족(혹은 부모), 학교(혹은 교사), 친구 등 사회화 주체들과 어떤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2008년에는 질적인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5개국에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일관성을 꾀하였다. 아울러 2년간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드러난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에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을 참여시킴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비교도 함께 실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2008년 연구에서는 각국의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각국의 교육·가족·청소년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2008년에 이루어진 연구는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사회화 에이전트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5개국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과 나머지 4개국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한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한국 청소년의 사회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 연구는 2년간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각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과 건전한 성인기로의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추진경위

1) 국제학술대회 참가

2008년 6월 15일 노르웨이의 Lillehammer에서 개최된 제10회 NYRIS (The 10th Nordic Youth Research Information Symposium)에서 2006년도(5개국)와 2007년도(4개국)에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Patterns of adolescent relationship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International comparison of Korea, Japan, USA, Sweden and Germany」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본 조사 연구에 참여한 국가의 부모-자녀 관계,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 비교 분석 결과였다.

2008년 11월 23일과 24일에는 국외 협동연구기관인 일본의 게이오대학 21COE-CCC(The Center for Civil Society with Comparative Perspective)와 공동으로 제81회 일본사회학대회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한일비교」 세션을 기획하여, 일본연구진과 한국연구진이 한일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물 총 5편을 발표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기 사회화의 한일비교연구-사회화 에이전트와의 관계성: 국제비교결과로부터”를 발표하였다.

2) 연구포럼 및 국제심포지엄

2008년 9월 16일 일본 게이오대학의 GCOE(Global Center of Excellence) 연구팀과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포럼을 실시하였다. 연구 주제는 일본 연구팀에서 6주제, 본 연구과제 팀에서 1주제를 발표하였다.

2008년 10월 24일(한국, 일본, 미국)과 10월 28일(독일, 스웨덴)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국의 네트워크 분석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들의 분석 결과와 5개국의 교육·가족·청소년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3)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협동연구

2006년에는 설문조사만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면접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미정 박사),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세대학교(박순용 교수),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게이오대학(오자와 마사유키),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엘레펠트대학(구드룬 쿤첼 교수), 스웨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스톡홀름대학(최연혁 교수)이 수행하였고, 각 조사팀의 연구결과는 별도의 세부과제보고서로 작성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2008년도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의 보고서는 총괄 보고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이외에 2권의 세부과제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과제보고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일반계층 청소년과 저소득계층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 교육·가족·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이다.

각 세부과제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이 보고서는 2006년(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과 2007년(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분석은 2006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2007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보고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중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사회화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화에 대한 분석을 더 세밀하게 진행하였다.

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일반계층 청소년과 저소득계층 청소년 비교연구」

2007년도에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교육격차가 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의 소인수학교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의 질적 연구에서는 2007년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 격차의 이슈를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을 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의 사

회화 패턴을 비교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5개국에 동일한 포맷으로 실시함으로써 면접 조사의 일관성을 꾀하였으며, 일반 청소년과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사회화 에이전트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 교육·가족·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5개국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5개국의 교육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편집한 것이다. 각 국의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자녀 관계
2. 친구관계
3. 교사와의 관계
4. 성별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사회화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자녀 관계

많은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태도),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갈등관계, 신뢰 및 친밀도, 생활시간의 공유, 부모의 관심과 기대, 그리고 통제적 관여와 영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서구 문화권과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부모자녀관계는 상당부분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이 2006년 5개국 조사에서 드러났다(김현절·김은정 외, 2006). 이 절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영향,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두어 2006년 조사결과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부모의 양육행동

2006년 조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한국부모’라는 개념을 다른 조사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양육행동’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대상국가 모두에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부와 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이며 일종의 가정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국가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독일과 일본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한국은 아버지-딸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아들 사이의 관계보다 긍정적이고 미국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은 성적 문제에서는 아버지-아들관계, 교우관계 및 이성 관계 문제는 아버지-딸 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¹⁾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다룬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부모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와의 갈등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심리적 그늘을 떠나 독립심을 키우려는 청소년의 시도이며,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형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정도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에서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Fishbein과 Ajzen(1975)는 부모의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방식으로 가족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문화적 배경, 부모 또는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팜 프익 마잉·이진화·신인숙, 2007: 236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부모들은 애정적 태도를 취하나 자율적 태도로 자녀를 대하기보다는 다소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실시한 5개국 면접조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가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

-
- 1) 한국·독일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한 고윤주(2001)의 연구에서는 신뢰·애착·부모의 충고를 구하는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독일 청소년은 부모와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며 친밀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으며,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효'가 기본이 되는 유교문화와 집단주의문화로 인해 부모자녀간에 갈등을 삼가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2) 청소년과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문수경(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녀의 효 의식,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성적이 부모자녀관계를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과 불화 역시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과 성적에 높은 기대를 지니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태도보다는 성적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당연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의 일면이 관찰되었다. 즉, 부모와의 관계는 양육행동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독립심, 탐험심, 창의적 행동들을 격려하는 한편,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양에서는 부모에 대한 복종,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신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강조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많은 조언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부모 뿐 만 아니라 교사와 그 밖의 성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보이는 등 부모자녀관계는 그 나라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Triandis, 1995; 고윤주, 2001; 문수경, 2005).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과 이로 인한 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 중도탈락 및 일탈과 같은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박영신·김의철, 2004; 조아미, 2002; Otten, Harakeh, Vermulst, van den Eijnden, & Engels, 2007; Wallenius, Punamaki, & Ripela, 2007)는 점에서 청소년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부모와 상호작용의 영향

2006년 조사에서 대상국가 모두에서 청소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대화를 자주하는 등 개방적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은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각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자녀는 건강한 자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부진·김효원, 2008; 허철수·양민철, 2006; Bumpus & Hill, 2008; Fong, 2007). 이

외에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이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측정하는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 및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변인이다.³⁾

특히,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적거나 이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가정 내에서 학습한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법은 다른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며(Stuart, Fondacaro, & Miller, 2008: 676) 청소년이 부모에게 고마움, 친밀감, 존경심을 가질 경우 자녀들은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민병기, 2002) 부모자녀관계는 성격 및 지적 발달 뿐 아니라 청소년이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회체계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비해 의사소통을 포함한 기능적 측면과 생태학적 환경체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 특히 강조되며(Bronfenbrenner, 1986; 최지은·신용주, 200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기회 등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외체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즉,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3)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친구와의 애착보다 자아개념 발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질투·갈등·의존·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의사소통은 애착관계 측정 도구인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주요 변인이며, 부모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바람직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행동적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Greenberg, 1983; Fisher, 1990; 이진숙·정혜정, 2004: 4 재인용).

4) 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 환경체계를 규정하였는데, 청소년은 가족·학교·또래친구 등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인 미시체계, 집-학교와의 관계 등 미시체계간의 관계망을 포함하는 중간체계, 부모의 직업 환경 및 사회적 관계망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인 외체계, 마지막으로 문화, 사회규범, 공공정책, 법률,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등 관습과 일상생활 습관으로 표현되는 거시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Grossop, 1988: 1-15).

적응 정도가 긍정적이라는 주장(최지은·신용주, 2003)과, 사회경제적 지위 보다는 청소년의 정서·행동에 부모가 얼마나 반응적이며 갈등표현의 방법과 대인관계에 대해 관여하고 규제하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Chen & Beerdan, 2006; Lutz, Hock, & Kang, 2007)이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비해 여학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할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김영미·심희옥, 2000)이라는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자녀와 부모의 성차(性差)에 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상호작용과 모니터링 정도가 자녀의 약물사용, 비행행동, 학업성취, 교육적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한다(Mounts, 2001, 2007).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또래·대인관계 및 학교·사회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3) 가정생활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2006년 5개국 비교조사에서 4점 척도로 가정생활만족도를 국가별·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일본·미국·스웨덴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일본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교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남녀별·남녀학교별·지역별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낮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과 성적이 낮은 학생이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학교 및 성적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김은정·민경석, 2007: 49-50).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스웨덴의 경우 성적과 가정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이 상

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경숙·박금미(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가치지향⁵⁾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순형·이영미(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에 비해 집단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청소년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고 학교생활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 가운데 집단주의가 강할수록 가족주의도 강하며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물질주의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집단주의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일본에 비해 미국·독일·스웨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2006년의 면접조사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순형·이영미(1997)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가정·학교·자신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주관성에 따라 가치지향을 집합·개인·가족·물질주의 등 네 가지로 임의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단선적인 비교에

5) 개인보다는 집단에 보다 큰 비중과 가치를 두는 경우 집단주의 가치지향으로 볼 수 있는데, 집단주의 하에서는 집단내의 위계와 조화가 중시되고 위계와 의존관계가 보다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등 여러 수준의 집합체 가운데 가족을 가장 강조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의 전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조사대상 청소년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간에 다소 갈등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순형·이영미, 1997).

는 한계가 있다.

2. 친구관계

친구관계(friendship)는 또래관계(peer relation)와 개념상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또래는 연령이 비슷하거나 성숙 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Perry & Bussey, 1984; Santrock, 1990; 최지은 · 신용주, 2003: 202 재인용), 또래관계는 비자발적인 2차적 집단으로 구성원들의 수가 많고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적은 관계로 정의된다. 반면, 친구관계는 상호선택에 의한 친밀한 양자관계(dyadic relationship)로서 또래관계에 비해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Bukowski & Hoza, 1989; Hallinan, 1981; Parker & Asher, 1993; 배선영 · 이은혜, 2001: 80; 최정미 · 김미란, 2003: 374)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친구관계는 서로 아는 사이(acquaintance)를 거쳐 유지 · 심화 ·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이 발달하게 되고, 친구관계의 질은 청소년기 동안 특히 중요시 된다(Flook, Repetti, & Ullman, 2005; Piehler & Dishion, 2007).

여기에서는 2007년 5개국 조사에서 살펴본 친구관계의 밀도와 특성,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친구수와 관계

2007년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평균 친구 수⁶⁾는 13.3명으로 남학생이 14.3명, 여학생이 12.2명으로 남학생이 친한 친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

6) 2007년 조사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 4명을 고르게 한 후 4명의 친구 각각에 대해 친구관계를 물은 후 4명 이외의 친한 친구수를 1명에서 15명 이상까지 선택지에서 고르게 하였다. 즉, 정확한 친구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타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친구 수는 줄어들고 인문계보다 전문계의 경우 친한 친구 수가 적은 경향을 보인다(김현철·김은정·민경석, 2007). 이와 함께, 성적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 수가 많고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친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친구관계의 폭은 학업성취 및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수를 국가별로 보면 한국 13.3명, 일본 14.3명, 미국 12.4명, 스웨덴 16.7명으로 나타났는데 친한 친구의 정의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친구 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성적이 낮을수록 친구 수가 많은데 반해 한국은 성적이 높을수록 친구가 많고 성적만이 유일하게 친구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국내·외 연구에서 친구관계의 질은 서로에게 놀이·동료애와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 자기노출과 상호교환 정도, 공유와 도움 및 안내를 주는 정도, 관계 인정 및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 등 사회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었다(Furman, 1982; Parker & Asher, 1983; 배선영·이은혜, 2001; 고윤주·이은혜·Mendelson,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박소라·김은미·나은영, 2007). 이들 연구에서는 친구의 수에 비해 친구관계의 밀도와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친구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갈등해결, 인터넷 및 약물중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먼저, 아동·청소년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회피하거나 양보하는 방법을 사용할수록 친구가 사회정서적 지원을 해준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고 친구관계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즉, 개인의 갈등해결방식이 친구관계의 만족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친구수와 밀도는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여 친구가 많을수록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확률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친구관계의 밀도와 친구관계 지속기간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체로 밀도가 높을수록 친구관계 지속기간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⁷⁾ 마지막으로

로, 친구관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이고 배타적인 친구 관계를 나타내며 동성친구와 상호작용이 보다 빈번하고 자기노출과 정서적 지원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중독 경향에 성차는 없으며 다만 사용 목적이 대인관계추구 인지, 게임·오락 등의 목적인지에 따라 친구관계에도 차이가 있다는 등 이견이 있다.

2) 친구관계의 특성

2007년 면접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친구와 친한 친구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에게 요구 되어지는 요소로는 가치관의 공유, 시간의 공유, 그리고 ‘스스럼없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깊이와 ‘서로가 고민을 들어 준다’라는 쌍방향성 등이 도출되었다.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서 요구 되어지는 역할이나 캐릭터를 자각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 뿐 아니라 인기 있는 친구, 따돌림 받는 친구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학업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국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같은 연구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며 이는 기타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한국 부모는 자녀의 많은 것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자녀의 성적과 관

7) Park(1996)은 한국 청소년은 독일 청소년에 비해 친구의 수는 비슷하나 친구를 사귀는 기간이 짧고 관계망의 밀도도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인 청소년을 비교한 Barunlund and Araki(1985)는 미국인은 칭찬이 생활화되어 있으나 일본은 칭찬이 때로는 당황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익숙하지 않은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친구관계에서도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다(고윤주 외, 2002: 5~8 재인용).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비교한 고운주 등(2002)의 연구에서는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 학생에 비해 친구에게 사회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기대하며 친구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학생들은 소수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친구의 친구들과도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캐나다 학생에 비해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데 반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박영신(1997)은 청소년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높은 친구끼리 사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기조절을 잘하는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끼리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친구관계를 통해 효능감을 형성하지만 동시에 효능감은 친구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대인관계 유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될수록 부·모·교사와 같은 주위의 영향력 있는 성인으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하지만 친구지원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이상미·김의철·박영신, 2006: 300 재인용).⁸⁾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비행, 학교폭력, 일탈행동, 자살행동과 같은 외현적 부적응 행동이나 공격성, 우울증, 불안정과 같은 내면적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erndt, 2004; Dishion & Owen, 2002; Jaccard, Blanton, & Dodge, 2005; Way & Robinson, 2003). 반면 친밀한 친구관계는 또래에 의한 집단 괴롭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Hodges, Boivin, Viatro & Bukowski, 1999), 또래배척으로 자아지각이 낮아지는 것을 중재하고(Vandell & Hembree, 1994),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한 아동·청소년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외로움·우울·학교 부적응 및 비행 등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Furman

8) 그러나 2006년, 2007년 5개국 비교연구에 따르면 친구관계의 영향이 증가하는데 반해 부모 및 교사의 영향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Robbins, 1985; Parker & Asher, 1993)는 연구결과도 있다(최정미 · 김미란, 2003: 374).

이와 함께,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최정미 · 김미란, 2003; Azmitia, 2002), 자신의 가족이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고 의사결정 방식이 민주적이며 가족의 역할관계 구조가 융통성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친구관계 질에서 긍정적 기능과 만족감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김소희 · 오윤자, 2006; 백경숙 · 권용신, 2004). 즉, 친구관계 역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미디어와 친구관계

2007년 5개국 조사 결과 모든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은 친구관계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되나 오프라인의 관계와 온라인의 관계가 별개로 형성되기 보다는 온라인 관계는 오프라인 관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휴대폰과 같은 미디어는 그것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미디어를 통해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은 각국 청소년들의 공통점으로 나타났다(김현철 · 김은정 · 민경석, 2007).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가족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한다. 먼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기존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과, 이와 반대로 기존 관계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로 가는 경향이 있다(Tapscott, 1998; Neil, 2001; Orleans & Laney, 2000; Wellman et al, 2001; Belcha, Krentlera & Willis-Flurry, 2005)는 입장이 그것이다.⁹⁾ 결론적

9) Orleans와 Laney(2000: 5)는 이러한 상반된 시각을 제로섬(zero-sum)과 비제

으로 볼 때 인터넷 이용은 인간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화에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Arnett, 1995; Whitlock, Powers, & Eckenrode, 2006).

2007년 국가 간 비교조사결과 한국 청소년의 응답자 가운데 51.6%가 온라인상의 친구가 있다고 답하였는데 친구수가 가장 많았던 스웨덴(68.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국(42.6%), 일본(21.8%) 순으로 나타났다.¹⁰⁾ 면접조사를 병행한 결과 청소년의 온라인상 관계는 오프라인과 별개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고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상 친구 유무는 남녀·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온라인 친구가 있는 비율은 전문계 고교(57.6%), 중학교(52.0%), 일반계 고교(49.8%), 특목고(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온라인 상의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와 반비례관계를 나타냈다(김현철·김은정·민경석, 2007: 78~9).

인터넷 중에서도 게임·통신·음란물 중독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게임을 중독적으로 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족 및 친구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유경·채규만, 2006).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인터넷 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Young, 1997; 박부

로썸(non zero-sum) 사고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즉, 전자는 새로운 미디어나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시간과 인간관계를 줄여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 자체가 네트워크이며 협동·자발성·공유를 기본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현실 세계의 사회자본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면대면 인간관계보다 온라인 인간관계를 편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인터넷은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Larson, 2003).

10) 온라인상 친구수는 한국 7.73명, 일본 7.05명, 미국 6.75명, 스웨덴 7.67명으로 평균 7.4명이었다.

진, 2001; 조아미·방희정, 2003: 251 재인용),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의 욕구가 큰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과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은 사회 참여와 인간관계의 유지 수단이 되는 방송형 매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용 대중매체와는 목적과 영향 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후자가 시간을 보완하는 매체(time-enhancing)라면 전자는 시간을 대체하는(time-displacing) 매체라는 점에서(Robinson et al., 2001; 박소라 외, 2007: 50), 인터넷은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사회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라 볼 수 있다.

3. 교사와의 관계

1) 교사와의 친밀도

2007년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학생은 10명 가운데 6명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남학교나 남녀공학보다는 여학교, 전문계 고교보다는 일반계 및 특목고의 경우, 그리고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비율을 보면 미국(92.1%), 스웨덴(83.6%), 일본(68.7%), 한국(58.3%)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해서 호감을 느끼는 교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남학교와 남녀공학보다는 여학교에서 ‘있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성적별로는 상위 성적과 하위 성적의 학생이 중위 성적 학생보다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좋아하는 교사와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이 서로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철·김은정·민경석, 2007:

54-5). 이는 교사에 대한 기대가 크거나 또는 친밀할수록 오히려 싫어하는 교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물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좋아하는 교사가 더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교사는 더 많은 경향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로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비율을 보면 일본(77.6%), 스웨덴(76.4%), 한국(74.8%), 미국(72.4%) 순이었다.

교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수업이 재미있거나 유머가 있어서’가 57.8%,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57.8%,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기 때문에’ 52.3%,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4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싫어하는 이유는 ‘학생을 차별하기 때문에’ 52.6%, ‘학생을 무시하기 때문에’ 47.9%, ‘수업이 재미없고, 유머가 없기 때문에’ 46.3%, ‘화를 잘 내고 무섭기 때문에’ 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선호는 교사의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태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¹⁾

다음으로 교사와의 친밀도를 10개 항목(4점 척도)으로 구성된 척도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았고, 전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고, 특목고는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친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의 친밀도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사에 대한 친밀도는 미국(2.70), 일본(2.40), 스웨덴(2.38), 한국(2.22) 순이었다.

이와 같은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적대감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일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박영신·김의철(2004)에 따르면 교사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심각한 일탈행동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교사가 자신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업성취를 추구하는 행동과 더욱 많은 관련을 갖는 것

11) 다만 성적이 좋을수록, 일반계에 비해 특목고의 경우 교사의 실력을 좋아하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 수업의 재미와 유머, 실업계 고교는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학교에서의 처벌경험은 일탈행동을 감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고,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교사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아·정현희(1999)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비행·우울·또래문제 등 학교적응과 관련한 문제가 적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길(2006)은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는 고교생의 진로정체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언급하면서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청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위해서는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사에 대한 만족도

일반계 고교생과 씬터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규석(2004)의 연구에서 교사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의 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는 성적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적응 모두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만족도는 부모 및 친구관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 외에 교사와의 친밀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고,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전문계 고등학생이 낮고, 특목고는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2.93)이 가장 높고 한국(2.49)이 가장 낮게 나타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친밀도를 설명하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한국 교사는 소명의식이 다소 약화된 반면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김은정·민경석, 2007). 또한 교직에 대한 회의와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감이 교차하고 있으며

상당수 교사가 무력감을 호소하며, 교사들은 학생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보다는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 교사들은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스스로 사회화 주체로서 주변인의 입장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독일의 경우 학생은 교사에 대한 친밀감은 다소 약하지만 교사의 가르치는 기술 즉, 전문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등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생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학생의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다. 특히, 유교문화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모자관계의 확대형태를 취한다(이상미 외, 2006: 299)는 점에서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학교생활만족도

2007년 조사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4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생활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으며, 전문계 고등학생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높고, 특목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의 친밀도 및 만족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학교생활만족도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과 스웨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만족도는 친구관계 및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에서 교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과 적응에 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남영옥·김재한, 2003; 문은정·심희옥, 2001; 유선이·

김광웅, 1999; 정규석, 2004; Brooks-Gunn et al., 1993; Ekstrom et al., 1986). 이들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가족·친구·교사를 포함한 학교 관련 변인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다루어졌으며 부모·친구·교사 등 이들 전통적인 체계와의 관계가 굳건하고 애착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비행보다는 유연한 적응으로 사회화된다고 볼 수 있다.¹²⁾

지금까지 청소년의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사회 환경은 ‘사회화환경’의 빈곤으로 축약될 수 있다(김현철·김은정·민경석, 2007: 103). 즉,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간 갈등관계는 보편적인 것일 수 있으나 한국 청소년들은 특히 부모와 더욱 심한 갈등관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교사와의 관계도 소원하며, 친구관계도 매우 단조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의 빈곤함 혹은 단조로움은 극심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시간적 제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¹³⁾

4. 성별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사회화

청소년의 사회화가 성별로 다르게 진행된다는 연구는 주로 부모-자녀 관계와 친구관계의 모습에 있어서의 성차를 다루고 있다. 박부진·김효은(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 점수가 여자 고등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 고등학생

12) Hirshi(1969)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학교 및 사회에 대한 적응을 사회유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잘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유대를 전통적 체계에 대한 애착(attachment), 전통적 목표에 대한 전념(commitment), 전통적 활동에 대한 참여(involvement), 그리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념(belief)의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족·친구·학교 등 전통적인 체계에 대한 애착이며 이들 체계와의 관계가 비행을 막고 적응을 도모하여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13) 2006년 5개국 조사결과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한국 청소년의 비율은 77.0%였다. 이는 일본(66.6%), 미국(19.6%), 독일(3.6%), 스웨덴(22.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김현철·김은정, 2006).

의 경우 부모의 통제를, 자신을 속박하고 부자유스럽게 만들기 위한 부모의 규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김성일·김남희(2001)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부모의 요구와 모니터링에 대한 남녀 청소년 자녀의 서로 다른 반응과 부모-자녀 간 대화에 있어서의 차이(장해순·강태완, 2005)는 이들의 사회화의 경로를 다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가정에서의 사회화는 청소년의 비행과도 관계가 있는데,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의 성차는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영희, 안상미, 2008). 그러나 한 편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장주, 최상진, 2003)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차를 고려한 분석을 첨가함으로써, 사회화의 성차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화에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친구는 청소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화 에이전트이다. 친구 관계에 노출된 정도, 친구 관계의 질(quality)적인 특성, 친구의 인적 구성 등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변인들이다. 특히 친구 관계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화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성차(gender difference)이다(Fabes, Martin, & Hanish, 2004). 남아와 여아는 비록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Maccoby, 1990). 남녀 청소년이 구성하는 교우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Poulin & Pedersen, 2007), 이들이 교우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양상도 다르게 된다. 교우관계의 성차는 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Conway, 2005; Hoglund, 2007; Kornelius, Siegwart, & Rene, 2007), 친구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친구로부터의 거부나 왕따, 학교폭력 등과 같은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행동이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교우관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가정의 배경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학력과 청소년의 사회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자아정체감도 잘 형성된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성일·김남희, 2001; 신효식·김근화, 2004; 안현정·이소희, 2005), 부모의 학력 수준과 청소년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이희자·김경원, 2000)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부모의 학력 중에 아버지의 학력을 독립변인 중의 하나로 상정하였다. 양 부모 중에서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결과변인과 관련되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아버지와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박부진·김효원, 2008; 양현아·박영애, 2004; 이영숙·김정옥, 2002)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사회화변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개요

III. 연구 방법

1. 조사 개요

1) 연차별 연구방법 개요

2006년에는 5개국(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4개국(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에 대한 설문조사와 5개국(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조사방법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III-1> 3개년 조사 개요

		2006년	2007년	2008년
주제		부모-자녀관계 중심	교사 및 친구 관계 중심	부모, 친구, 교 사와의 관계
설문 조사	조사 대상국 (지역)	한국(전국), 일본(대도시), 미국(대도시), 독일(대도시), 스웨덴(대도시)	한국(전국), 일본(대도시), 미국(대도시), 스웨덴(대도시)	미실시
	조사 대상	중고생(14-17세)	중고생(14-17세)	
면접 조사	조사 대상국 (지역)	미실시	한국(전국), 일본(대도시), 미국(대도시), 독일(대도시), 스웨덴(대도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조사 대상		중고생, 학부모, 교사 (미국, 독일, 스웨덴은 청소년만)	중고생

<표III-2> 2006, 2007 설문 조사 표본 수

	표집방법	2006		2007	
		N		N	
		남	여	남	여
한국	층화2단계추출법	3,747		3449	
		1979	1,768	1811	1638
일본	층화무선표집	489		525	
		227	262	272	254
미국	편의표집	1,875		902	
		853	1,022	509	393
스웨덴	다단계 유층별 군집표집	511		388	
		220	291	194	194
독일	편의표집	495		-	
		271	224		

<표III-3> 2007, 2008 질적 조사 표본 수

		2007	2008
		N	N
한국	부모	37	-
	교사	15	-
	학생	76	32
일본	부모	5	-
	교사	3	-
	학생	12	10
미국	학생	26	31
스웨덴	학생	19	40
독일	학생	16	32

2007년도 질적 조사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미국과 스웨덴, 독일은 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의 질적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통일하여 실시하였고, 일반계층 청소년과 저소득 계층 청소년의

차이를 보고자 노력하였다.

2) 2008년 연구방법

2008년에는 2006년과 2007년의 설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에서는 분석 범위를 대도시로 한정하여 실시하였고, 질적 분석 방법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은 기존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도에 새롭게 면접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질적 연구

2006년의 5개국 설문조사와 2007년 4개국 설문조사는 국가별로 표집 방법과 조사방법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자료의 해석을 위해서는 2차 자료의 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통찰과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2006년 조사와 2007년 조사는 각각 독립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5개국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각국 연구자들이 조사진행을 위해 적절하게 개선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독일의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사회화 연구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도 조사에서 각국 조사에 반영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화 에이전트인 가족, 친구, 학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네트워크분석 방법에 대한 세부과제보고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를 참조할 것.) 이 방법을 통하여 설문조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었고, 각 국 청소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청소년의 사회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을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세부과제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2) 설문 조사 분석

2008년 연구에서는 2006년과 2007년도의 설문조사 분석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분석하였다. 2006년과 2007년의 분석에서 대표되는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표집을 대도시와 수도로 한정하고, 성별과 부의 학력을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07년도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의 경우 대부분의 표본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을 대도시로 한정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분석은 2006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친구관계와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2007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IV. 주요 연구 결과

1. 부모-자녀관계
2. 친구관계
3. 교사-학생 관계
4.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과 만족도

IV. 주요 연구 결과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비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동경, 미국과 스웨덴, 독일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5개국 비교에 이용된 각국의 표본은 다음과 같다 (<표IV-1> 참조). 또한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성별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분포는 <표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 분석에 사용된 표본

	2006(부모와의 관계)			2007(친구, 교사와의 관계)		
	표집방법	N		표집방법	N	
		남	여		남	여
한국*	층화2단계추출법	734		층화2단계추출법	659	
		248	486		316	343
일본*	층화무선표집	477		층화무선표집	268	
		222	225		138	130
미국**	편의표집	817		편의표집	697	
		376	441		298	397
스웨덴**	다단계 유층별 군집표집	351		다단계 유층별 군집표집	238	
		151	200		118	120
독일**	편의표집	374		미 실시		
		206	168			

* 각 국의 수도에서 표집

** 각 국의 대도시에서 표집

<표Ⅳ-2> 분석에 사용된 표본(성별, 부의 학력) (2006(2007))*

	총 표본 수	성 별		부의 학력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734(659)	248(316)	486(343)	298(280)	369(321)
일 본	477(268)	222(138)	255(130)	148(90)	286(158)
미 국	817(697)	376(298)	441(397)	12**(194)	215(380)
스웨덴	351(238)	151(118)	200(120)	174(89)	127(104)
독 일	374	206	168	233	94
전 체	2753(1862)	1203(870)	1550(990)	865(653)	1091(963)

* 총 표본 수와 성별, 부의 학력의 표본 수의 차이는 결측치로 인한 것임

** 2006년 미국 표본수는 극히 적으므로, 차후의 분석표(<표Ⅳ-4>~<표Ⅳ-11>)에서는 공란으로 처리하였음

1. 부모-자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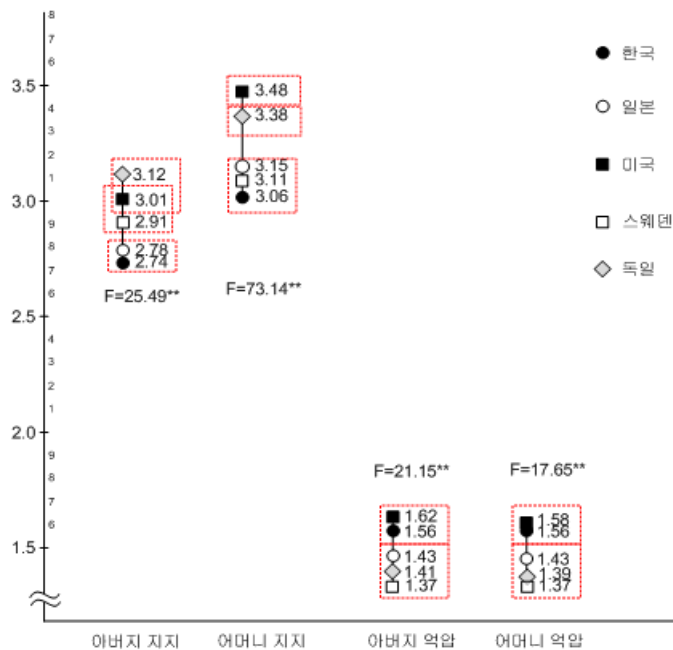
1) 지지와 억압

부모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2006년 설문지, 문12(1-18번), 문13(1-17))에 대한 응답을 요인 분석한 결과 지지, 억압, 통제, 갈등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Ⅳ-3> 부모-자녀 관계 문항

부모-자녀 관계	문 항
지지	12-(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2-(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12-(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12-(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2-(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2-(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12-(9)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12-(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12-(18)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억압	12-(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12-(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12-(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12-(14)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12-(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12-(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12-(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통제	13-(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차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3-(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3-(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3-(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3-(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3-(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갈등	13-(7)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3-(11) 나는 성격,태도,습관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13-(12) 나는 행동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그림 IV-1] 부모의 지지와 억압에 대한 인식

<표 IV-4> 아버지 지지¹⁴⁾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74 (241)	2.74 (475)	-.09	2.69 (291)	2.82 (367)	-2.87**	2.74 ^c (716)	25.49**
일 본	2.72 (211)	2.84 (238)	-1.89	2.73 (144)	2.81 (281)	-1.18	2.78 ^c (449)	
미 국	3.05 (376)	2.98 (441)	1.02	-	-	-	3.01 ^{a,b} (817)	
스웨덴	2.95 (148)	2.87 (194)	1.29	2.96 (172)	2.95 (124)	.10	2.91 ^b (342)	
독 일	3.09 (197)	3.15 (163)	-.98	3.17 (227)	3.12 (93)	.61	3.12 ^a (360)	

**p<.01

<표 IV-5> 어머니 지지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98 (246)	3.10 (483)	-2.84**	3.02 (295)	3.13 (368)	-2.60*	3.06 ^c (729)	73.14**
일 본	3.02 (216)	3.25 (252)	-4.71**	3.11 (144)	3.18 (282)	-1.41	3.15 ^c (468)	
미 국	3.44 (376)	3.52 (441)	-2.10*				3.48 ^a (817)	
스웨덴	3.04 (151)	3.16 (197)	-2.08*	3.14 (173)	3.11 (126)	.40	3.11 ^c (348)	
독 일	3.29 (203)	3.49 (168)	-4.22**	3.41 (232)	3.35 (94)	.93	3.38 ^b (371)	

*p<.05, **p<.01

14) 괄호 안은 사례수를 나타내며, a, b, c는 사후 평균 비교 결과로 기호가 다른 경우 평균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Ⅳ-6> 아버지 억압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65 (241)	1.52 (475)	3.19*	1.54 (291)	1.57 (367)	-.86	1.56 ^a (716)	21.15**
일 본	1.44 (211)	1.41 (238)	.74	1.47 (144)	1.40 (281)	1.38	1.42 ^b (449)	
미 국	1.65 (376)	1.61 (441)	.67				1.63 ^a (817)	
스웨덴	1.35 (148)	1.38 (195)	-.72	1.37 (173)	1.38 (124)	-.29	1.37 ^b (343)	
독 일	1.43 (197)	1.38 (163)	.91	1.40 (227)	1.38 (93)	.33	1.41 ^b (360)	

*p<.05, **p<.01

<표Ⅳ-7> 어머니 억압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58 (246)	1.56 (483)	.54	1.56 (295)	1.56 (368)	.02	1.56 ^a (729)	17.65**
일 본	1.40 (216)	1.47 (252)	-1.69	1.43 (144)	1.43 (282)	.15	1.43 ^b (468)	
미 국	1.57 (376)	1.59 (441)	-.33				1.58 ^a (817)	
스웨덴	1.38 (150)	1.36 (197)	.40	1.35 (172)	1.39 (126)	-.88	1.37 ^b (347)	
독 일	1.40 (202)	1.38 (167)	.55	1.40 (230)	1.32 (94)	1.53	1.39 ^b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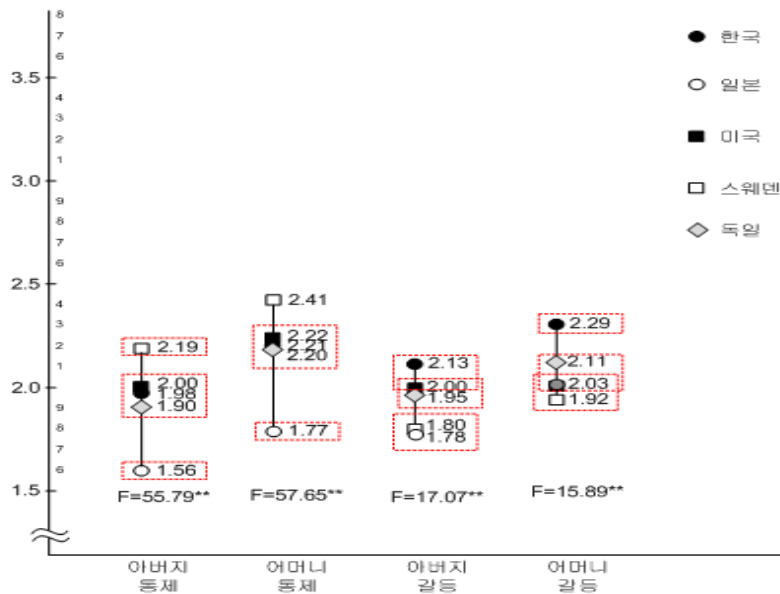
**p<.01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 지지와 억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 국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억압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지지에 있어서는 미국의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독일이며, 스웨덴, 일본의 순이며, 한국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지지에 있어서는 독일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독일 청소년은 양 부모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은 5개국 중에서 부모의 지지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억압에 대한 지각은 스웨덴, 독일,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미국은 그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지에 대한 지각은 낮게, 억압에 대한 지각은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가 나머지 4개국에 비해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과 성별을 고려한 분석 결과, 독일의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어머니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했을 뿐, 나머지 결과에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통제와 갈등



[그림 IV-2] 부모의 통제와 갈등

<표IV-8> 아버지 통제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01 (241)	1.96 (477)	1.09	1.97 (292)	1.98 (368)	-.22	1.98 ^b (718)	55.79**
일 본	1.56 (211)	1.56 (239)	-.01	1.58 (144)	1.57 (282)	.08	1.56 ^c (450)	
미 국	2.01 (376)	1.99 (441)	.41				2.00 ^b (817)	
스웨덴	2.20 (147)	2.19 (195)	.15	2.16 (172)	2.24 (124)	-1.19	2.19 ^a (342)	
독 일	1.91 (195)	1.88 (162)	.48	1.87 (225)	1.91 (92)	-.57	1.90 ^b (357)	

**p<.01

<표Ⅳ-9> 어머니 통제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17 (244)	2.23 (481)	-1.14	2.17 (292)	2.26 (367)	-1.72	2.21 ^b (725)	57.65**
일 본	1.75 (218)	1.78 (252)	-.51	1.71 (145)	1.82 (283)	-1.97	1.77 ^a (470)	
미 국	2.22 (376)	2.23 (441)	-.16				2.22 ^b (817)	
스웨덴	2.37 (150)	2.45 (194)	-1.26	2.35 (170)	2.46 (126)	-1.50	2.41 ^c (344)	
독 일	2.21 (200)	2.18 (167)	.50	2.19 (229)	2.13 (93)	.70	2.20 ^a (367)	

**p<.01

<표Ⅳ-10> 아버지 갈등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09 (241)	2.15 (477)	-.93	2.08 (292)	2.17 (368)	-1.37	2.13 ^a (718)	17.07**
일 본	1.71 (211)	1.84 (239)	-1.80	1.75 (144)	1.80 (282)	-.56	1.78 ^c (450)	
미 국	1.97 (376)	2.02 (441)	-.68				2.00 ^{a,b} (817)	
스웨덴	1.65 (147)	1.93 (195)	-3.74**	1.78 (172)	1.80 (124)	-.33	1.81 ^c (342)	
독 일	1.94 (195)	1.98 (162)	-.55	1.98 (225)	1.92 (92)	.63	1.96 ^b (357)	

**p<.01

<표Ⅳ-11> 어머니 갈등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21 (244)	2.33 (482)	-1.94	2.23 (292)	2.35 (368)	-1.90	2.29 ^a (726)	15.89 ^{**}
일 본	1.90 (218)	2.15 (252)	-3.38 ^{**}	2.01 (145)	2.05 (283)	-.59	2.03 ^{b,c} (470)	
미 국	1.98 (376)	2.07 (441)	-1.30				2.03 ^{b,c} (817)	
스웨덴	1.78 (149)	2.02 (194)	-2.92 ^{**}	1.90 (170)	1.89 (125)	.05	1.92 ^c (343)	
독 일	2.09 (201)	2.14 (167)	-.71	2.14 (230)	2.03 (93)	1.33	2.11 ^b (368)	

^{**}p<.01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살펴보면, 스웨덴 청소년이 부모의 통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청소년이 가장 낮은 수준의 통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통제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통제는 미국, 독일, 스웨덴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의 경우, 한국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갈등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청소년은 비록 부모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부모-자녀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부모의 억압에 대한 지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스웨덴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가 5개국 중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청소년은 부모의 지지는 낮게, 억압·통제·갈등은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각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을 고려한 분석결과에서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스웨덴의 경우만 남자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을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은 가정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를 감싸주고 이해해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짧고 대화의 방식도 투박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원활한 대화가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지와 아버지의 지지보다 높게 나타난 이전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의 차이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인식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한국청소년의 불만족은, 미래에 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66%의 학생이 ‘아니요’라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불만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양육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의견은 배제되어 있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의 정확한 바로미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족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단어를 연상시켰고,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 대 자녀’라는 이자관계(dyadic relationship) 보다는 ‘개인 대 개인’이라는 지극히 객관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적인 자료 분석에서도 부모의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미국의 청소년인 것을 보더라도 미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관련하여 억압

이나 무시, 불안정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시킨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로서,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지켜보면서 가족이 깨지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심각한 불화를 경험한 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미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역시 어머니의 존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중요한 사람으로 위치시킨 경우가 50%나 된 것으로 보아 아버지-자녀와 어머니-자녀의 관계 구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적 분석 결과에서도 반영되어 있는데, 독일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청소년에게 가족은 삶의 기반이 되고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족과 관련하여 ‘책임’이라는 가치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독일 가정의 경우 성장하는 청소년을 자립적인 인물, 더 나아가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키우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책임감과 규칙 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청소년 역시 가족의 따뜻함과 부모로부터의 보호,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와 친근함 등이 가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정은 결국 사랑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정이 중요한 이유로, 가정이 깨지면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만 다른 생활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언급함으로써, 가정 밖에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가정이 일종의 무게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네트워크 분석에 참여한 청소년의 70%가 본인이 부모가 되었을 때 본인의 부모님처럼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스웨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방식이 자녀들에게 큰 저항이나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적인 분석결과 역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의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에서 스웨덴 청소년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4개국의 청소년 모두 가정, 학교, 친구 중에 가정을 가장 중요한 삶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어떤 가족 구성원보다도 어머니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스웨덴의 경우 가정과 관련된 가치 중에 ‘사랑’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독일의 경우는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것을 감안해 보면 4개국 모두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로써 청소년의 삶에서 가정은 일종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돈독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친구관계

1)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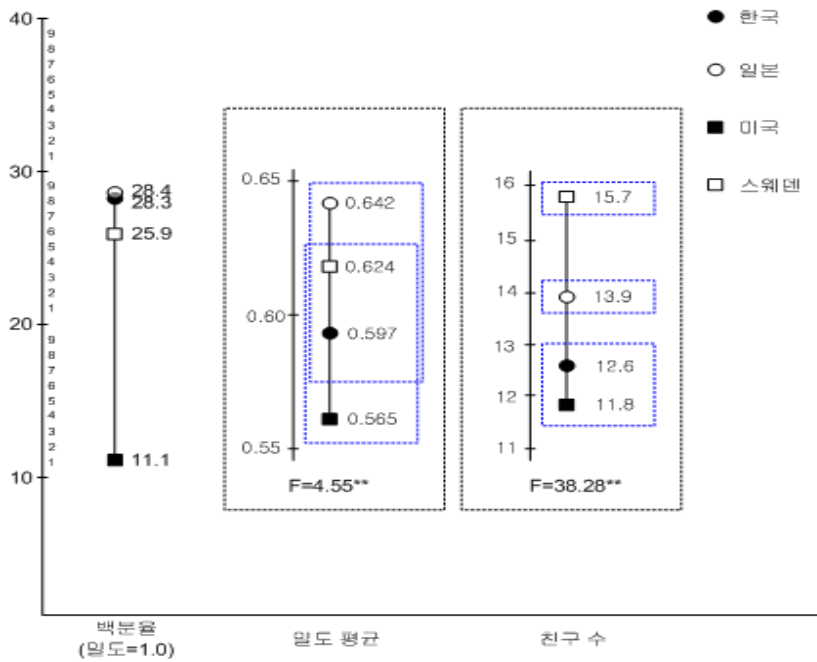
<표IV-12> 밀도 계산 방법

$$\text{밀도} = \frac{k1 + (k2 \times 0.5)}{n(n-1)/2}$$

A~D=친한 친구	잘 모르는 사이	알고 지내는 사이 <i>k2</i>	친하게 지내는 사이 <i>k1</i>
A and B	①	②	③
A and C	①	②	③
A and D	①	②	③
B and C	①	②	③
B and D	①	②	③
C and D	①	②	③

↓
↓
↓

Weight = 0 0.5 1



[그림 IV-3] 친구관계의 밀도

<표 IV-13> 친구관계 밀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66 (236)	.55 (291)	3.91**	.62 (226)	.57 (263)	1.77	.60 ^{a,b} (527)	4.55**
일 본	.65 (103)	.63 (105)	.61	.67 (66)	.64 (129)	.70	.64 ^a (208)	
미 국	.58 (223)	.56 (326)	1.18	.54 (152)	.59 (313)	-2.17*	.57 ^b (551)	
스웨덴	.69 (81)	.57 (93)	2.78**	.56 (71)	.68 (76)	-2.45*	.62 ^{a,b} (174)	

*p<.05, **p<.01

<표IV-14> 친구 수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3.71 (271)	11.63 (316)	4.92**	12.00 (251)	12.98 (291)	-2.18*	12.59 ^c (587)	38.28**
일 본	14.29 (135)	13.51 (128)	1.32	13.54 (90)	14.09 (155)	-.86	13.91 ^b (263)	
미 국	12.62 (276)	11.17 (375)	3.60**	11.66 (180)	11.80 (359)	-.32	11.81 ^c (653)	
스웨덴	15.93 (108)	15.54 (113)	.68	15.73 (83)	16.06 (95)	-.53	15.73 ^a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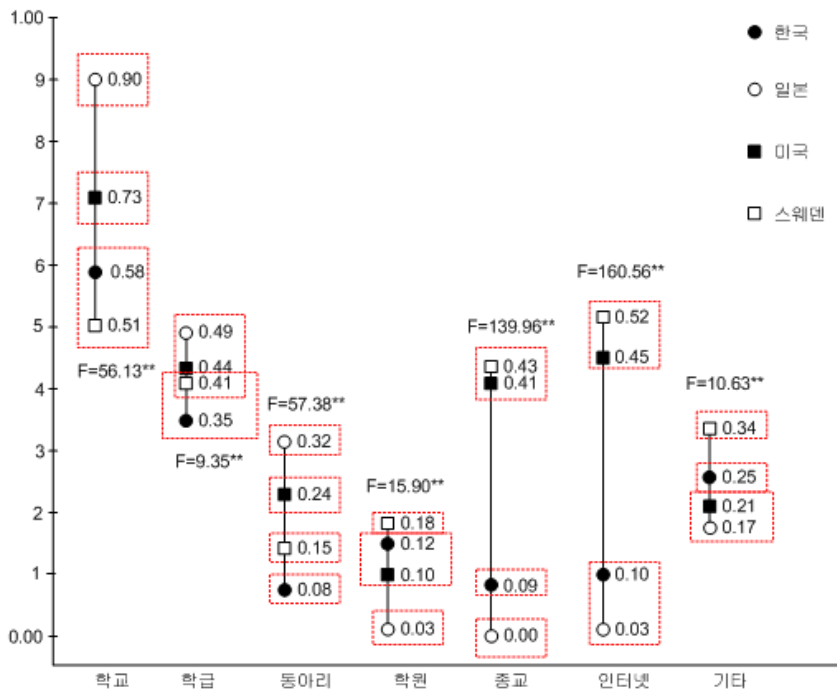
*p<.05, **p<.01

친구 관계의 밀도는, 청소년들이 친하다고 언급한 4명의 친구들 간의 교우관계의 밀도를 의미한다. 각각의 청소년이 언급한 4명의 친구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으므로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에 따라 친구간의 밀도를 계산하였다. 밀도 계산 공식은 손동원(2005)의 공식을 참고하였다. 밀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두 친구가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었는데, 잘 모르는 친구 간에는 “0”을,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0.5”를, 친하게 지내는 경우에는 “1”을 주었다.

친한 친구 간의 밀도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으로써, 일본 청소년의 밀도가 가장 높고 미국 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청소년은 자신이 언급한 4명의 친구들끼리 어느 정도 서로 아는 사이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4명의 친구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자신과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냄으로써 교우관계가 그룹 단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지만, 미국의 청소년은 교우관계가 일대일의 이자관계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친구의 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스웨덴은 여자 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수는 밀도 계산 시 언급한 가장 친한 친구 4명 이외의 친한 친구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스웨덴 청소년이 평균 15.7명을 언급하였고, 일본은 13.9명, 한국과 미국은 각각 12.6명과 11.8명을 언급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나라 모두 여자 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친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친구 수에 관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친하다’는 의미와 ‘친구’라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삼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친하다’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수준이 주관적이고, 누구를 친구라고 명명하느냐 하는 문제 역시 주관적이므로,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대략의 추세만을 살피는 것으로 자료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2) 친한 친구의 소속



[그림 IV-4] 친한 친구의 소속

<표IV-15> 같은 학교 친구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58 (286)	.57 (333)	.20	.55 (261)	.61 (306)	-1.51	.58 ^c (619)	56.13**
일 본	.94 (108)	.85 (114)	1.41	.92 (72)	.89 (136)	.43	.90 ^a (222)	
미 국	.74 (286)	.71 (391)	1.12	.73 (188)	.73 (373)	-.03	.73 ^b (679)	
스웨덴	.53 (112)	.50 (118)	.67	.47 (88)	.53 (100)	-1.18	.51 ^c (230)	

**p<.01

<표IV-16> 같은 반 친구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32 (286)	.37 (333)	-1.30	.32 (261)	.38 (306)	-1.79	.35 ^b (619)	9.35**
일 본	.49 (108)	.48 (114)	.23	.56 (72)	.44 (136)	2.02*	.49 ^a (222)	
미 국	.43 (287)	.44 (391)	-.55	.43 (189)	.46 (373)	-.84	.44 ^a (680)	
스웨덴	.43 (112)	.39 (119)	.80	.36 (88)	.43 (101)	-1.60	.41 ^{a,b} (231)	

*p<.05, **p<.01

<표Ⅳ-17> 같은 동아리 친구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09 (286)	.07 (333)	1.69	.09 (261)	.07 (306)	1.04	.08 ^d (619)	57.38**
일 본	.36 (108)	.29 (114)	1.36	.27 (72)	.37 (136)	-1.95	.32 ^a (222)	
미 국	.22 (287)	.25 (391)	-1.44	.23 (189)	.26 (373)	-1.34	.24 ^b (680)	
스웨덴	.22 (112)	.08 (119)	3.66**	.14 (88)	.15 (101)	-.16	.15 ^c (231)	

**p<.01

<표Ⅳ-18> 같은 학원 친구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1 (286)	.12 (333)	-.66	.11 (261)	.13 (306)	-1.19	.12 ^b (619)	15.90**
일 본	.04 (108)	.02 (114)	1.50	.03 (72)	.03 (136)	-.16	.03 ^c (222)	
미 국	.11 (287)	.10 (391)	.27	.11 (189)	.10 (373)	.71	.10 ^a (680)	
스웨덴	.13 (112)	.23 (118)	-2.91**	.18 (88)	.16 (100)	.66	.18 ^a (230)	

**p<.01

<표IV-19> 같은 종교 친구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08 (286)	.09 (333)	-.27	.07 (261)	.10 (306)	-1.46	.08 ^b (619)	139.96**
일 본	.00 (108)	.00 (114)	-.97	.00 (72)	.00 (136)	-.73	.00 ^c (222)	
미 국	.38 (286)	.43 (391)	-1.60	.44 (188)	.39 (373)	1.33	.41 ^a (679)	
스웨덴	.40 (112)	.46 (118)	-.70	.35 (88)	.46 (100)	-1.26	.43 ^a (230)	

**p<.01

<표IV-20> 인터넷 상의 친구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4 (286)	.07 (333)	3.44**	.10 (261)	.10 (306)	-.17	.10 ^b (619)	160.56**
일 본	.03 (108)	.03 (114)	.51	.04 (72)	.02 (136)	1.14	.03 ^b (222)	
미 국	.40 (287)	.49 (391)	-2.75**	.44 (189)	.49 (373)	-1.32	.45 ^a (680)	
스웨덴	.53 (112)	.51 (119)	.24	.47 (88)	.56 (101)	-1.14	.52 ^a (231)	

*p<.05, **p<.01

<표Ⅳ-21> 기타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9 (286)	.30 (333)	-3.57**	.31 (261)	.21 (306)	3.03**	.25 ^b (619)	10.63**
일 본	.15 (108)	.18 (114)	-.98	.19 (72)	.15 (136)	.82	.17 ^c (222)	
미 국	.17 (287)	.24 (391)	-2.45*	.21 (189)	.19 (373)	.63	.21 ^c (680)	
스웨덴	.30 (112)	.38 (119)	-1.36	.36 (88)	.35 (101)	.13	.34 ^a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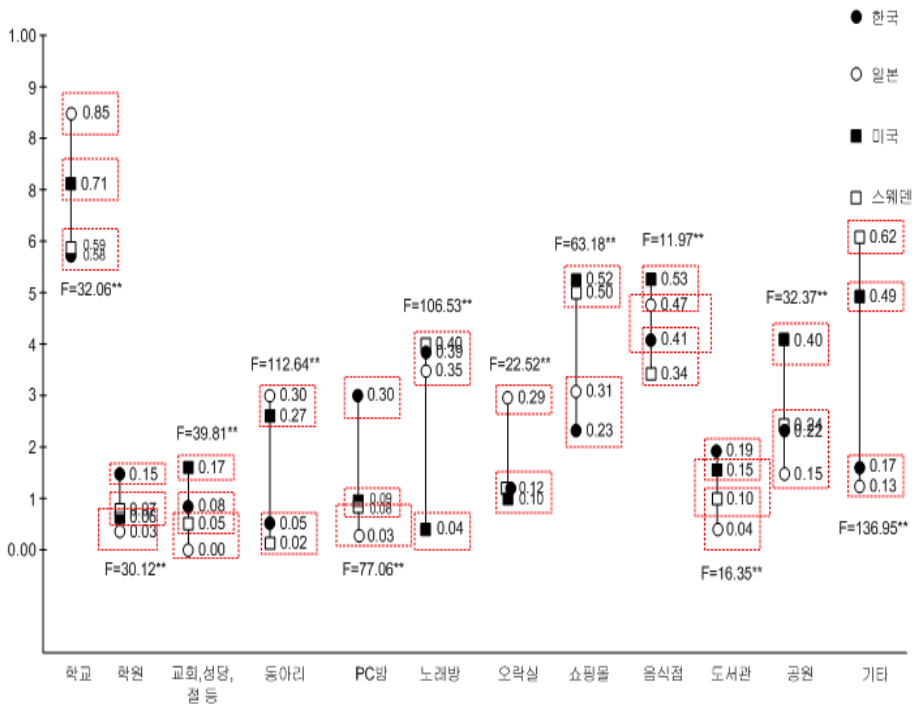
*p<.05, **p<.01

청소년이 언급한 4명의 친한 친구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본 청소년은 같은 학교·학급·동아리에 속한 친구가 가장 많았고, 스웨덴과 미국은 인터넷과 같은 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친한 친구와 같은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의 사설학원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방과 후에 친구들과 악기 레슨이나 승마, 테니스 같은 것들을 배우고 다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우관계 형성이 비교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의 청소년은 친한 친구들이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을 확률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은 같은 학교·학급·학원에 속한 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학원의 경우는 같은 학교·학급의 경우보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 현장에서 만난 친구는 친한 친구로 언급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공교육 현장이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청소년의 인터넷 매체 이용률이 높

은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교우관계 형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두 국가는 인터넷이 교우관계 형성의 장 보다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과 성별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스웨덴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구가 많았고,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같은 학원에 속한 친구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인터넷 상에서의 친구가 많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친한 친구와 함께 하는 장소



[그림 IV-5] 친한 친구와 보내는 장소

<표 IV-22> 학교에서 같이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59 (286)	.57 (333)	.65	.56 (261)	.60 (306)	-.96	.58 ^c (619)	32.06**
일 본	.90 (108)	.80 (114)	1.54	.87 (73)	.84 (136)	.39	.85 ^a (222)	
미 국	.72 (286)	.70 (391)	.84	.71 (188)	.73 (373)	-.80	.71 ^b (679)	
스웨덴	.60 (112)	.57 (118)	.67	.53 (88)	.61 (100)	-1.51	.59 ^c (230)	

**p<.01

<표 IV-23> 학원에서 함께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4 (286)	.15 (333)	-.67	.13 (261)	.16 (306)	-1.22	.15 ^a (619)	30.12**
일 본	.04 (108)	.01 (114)	2.14*	.03 (73)	.03 (136)	.12	.03 ^c (222)	
미 국	.06 (287)	.06 (391)	.35	.07 (189)	.05 (373)	1.30	.06 ^b (680)	
스웨덴	.08 (111)	.07 (119)	.28	.08 (88)	.08 (100)	.25	.07 ^b (230)	

*p<.05, **p<.01

<표Ⅳ-24> 종교기관에서 함께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07 (286)	.09 (333)	-1.46	.08 (261)	.09 (306)	-.64	.08 ^b (619)	39.81 ^{**}
일 본	.00 (108)	.00 (114)	-.97	.00 (73)	.00 (136)	-.73	.00 ^c (222)	
미 국	.13 (287)	.19 (391)	-2.64 ^{**}	.17 (189)	.16 (373)	.14	.17 ^a (680)	
스웨덴	.05 (112)	.05 (119)	.35	.05 (88)	.06 (101)	-.61	.05 ^b (231)	

^{**}p<.01

<표Ⅳ-25> 동아리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06 (286)	.04 (333)	1.52	.05 (261)	.05 (306)	.31	.05 ^b (619)	112.64 ^{**}
일 본	.32 (108)	.27 (114)	.99	.25 (73)	.33 (136)	-1.73	.29 ^a (222)	
미 국	.25 (287)	.28 (391)	-.95	.25 (189)	.31 (373)	-1.85	.26 ^a (680)	
스웨덴	.03 (112)	.01 (119)	1.66	.01 (88)	.03 (101)	-1.51	.02 ^b (231)	

^{**}p<.01

<표Ⅳ-26> PC방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46 (286)	.17 (333)	9.59**	.34 (261)	.25 (306)	2.55*	.30 ^a (619)	77.06**
일 본	.03 (108)	.03 (114)	-.17	.02 (73)	.03 (136)	-.53	.03 ^c (222)	
미 국	.08 (287)	.10 (391)	-.96	.10 (189)	.10 (373)	.10	.09 ^b (680)	
스웨덴	.11 (112)	.05 (119)	1.78	.06 (88)	.09 (101)	-.62	.08 ^{b,c} (231)	

*p<.05, **p<.01

<표Ⅳ-27> 노래방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7 (286)	.49 (333)	-6.01**	.44 (261)	.37 (306)	1.68	.39 (619)	106.53**
일 본	.26 (108)	.43 (114)	-2.41*	.44 (73)	.29 (136)	1.91	.35 (222)	
미 국	.03 (287)	.04 (391)	-1.44	.04 (189)	.03 (373)	.43	.04 (680)	
스웨덴	.22 (112)	.56 (119)	-5.13**	.36 (88)	.41 (101)	-.71	.40 (231)	

*p<.05, **p<.01

<표Ⅳ-28> 오락실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2 (286)	.12 (333)	-.02	.14 (261)	.11 (306)	.98	.12 ^b (619)	22.52**
일 본	.23 (108)	.34 (114)	-2.01*	.33 (73)	.25 (136)	1.47	.29 ^a (222)	
미 국	.13 (287)	.08 (391)	2.30*	.12 (189)	.09 (373)	1.22	.10 ^b (680)	
스웨덴	.20 (112)	.05 (119)	3.20**	.07 (88)	.18 (101)	-1.77	.12 ^b (231)	

*p<.05, **p<.01

<표Ⅳ-29> 쇼핑물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0 (286)	.35 (333)	-8.18**	.28 (261)	.21 (306)	2.06*	.23 ^b (619)	63.18**
일 본	.18 (108)	.43 (114)	-5.17**	.32 (73)	.30 (136)	.43	.31 ^b (222)	
미 국	.35 (287)	.65 (391)	-10.43**	.56 (189)	.54 (373)	.76	.52 ^a (680)	
스웨덴	.31 (112)	.68 (118)	-6.26**	.42 (88)	.52 (100)	-1.58	.50 ^a (230)	

*p<.05, **p<.01

<표Ⅳ-30> 음식점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4 (286)	.56 (333)	-9.30**	.49 (261)	.36 (306)	3.15**	.41 ^{b,c} (619)	11.97**
일 본	.35 (108)	.59 (114)	-3.40**	.59 (73)	.41 (136)	1.99	.47 ^{a,b} (222)	
미 국	.37 (287)	.64 (391)	-8.98**	.51 (189)	.57 (373)	-1.87	.53 ^a (680)	
스웨덴	.29 (112)	.39 (118)	-1.50	.29 (88)	.35 (100)	-1.03	.34 ^c (231)	

**p<.01

<표Ⅳ-31> 도서관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4 (286)	.24 (333)	-3.55**	.21 (261)	.18 (306)	1.09	.19 ^a (619)	16.35**
일 본	.04 (108)	.05 (114)	-.25	.04 (73)	.05 (136)	-.33	.04 ^c (222)	
미 국	.10 (287)	.20 (391)	-4.91**	.18 (189)	.15 (373)	1.24	.15 ^{a,b} (680)	
스웨덴	.08 (112)	.12 (118)	-1.33	.11 (88)	.08 (100)	.85	.10 ^{b,c} (231)	

**p<.01

<표 IV-32> 공원에서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6 (286)	.28 (333)	-3.96**	.28 (261)	.19 (306)	2.75**	.22 ^b (619)	32.37**
일 본	.14 (108)	.16 (114)	-.30	.16 (73)	.15 (136)	.18	.15 ^b (222)	
미 국	.32 (287)	.46 (391)	-4.25**	.39 (189)	.42 (373)	-.79	.40 ^a (680)	
스웨덴	.17 (112)	.29 (118)	-2.10*	.18 (88)	.21 (100)	-.59	.24 ^b (230)	

*p<.05, **p<.01

<표 IV-33> 기타장소에서 같이 보내는 비율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3 (286)	.20 (333)	-3.11**	.18 (261)	.16 (306)	.67	.17 ^c (619)	136.95**
일 본	.11 (108)	.14 (114)	-.66	.17 (73)	.11 (136)	1.46	.13 ^c (222)	
미 국	.46 (287)	.51 (391)	-1.65	.43 (189)	.51 (373)	-2.03*	.49 ^b (679)	
스웨덴	.57 (112)	.68 (118)	-1.53	.64 (88)	.61 (100)	.34	.62 ^a (230)	

*p<.05, **p<.01

청소년들이 지명한 4명의 친한 친구들과 보내는 장소는 4개국 모두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은 학교 다음으로,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학원, 동아리, 종교기관에서 친구와 함께 한다는 비율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이 왕성한 일본의 경우는 친한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비율이 비교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래방이나 음식점, 쇼핑몰 등지에서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은 학교 다음으로 쇼핑몰과 음식점, 공원이 주된 장소로 나타남으로써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한국의 청소년과 대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은 학교와 거의 같은 비율로 쇼핑몰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노래방과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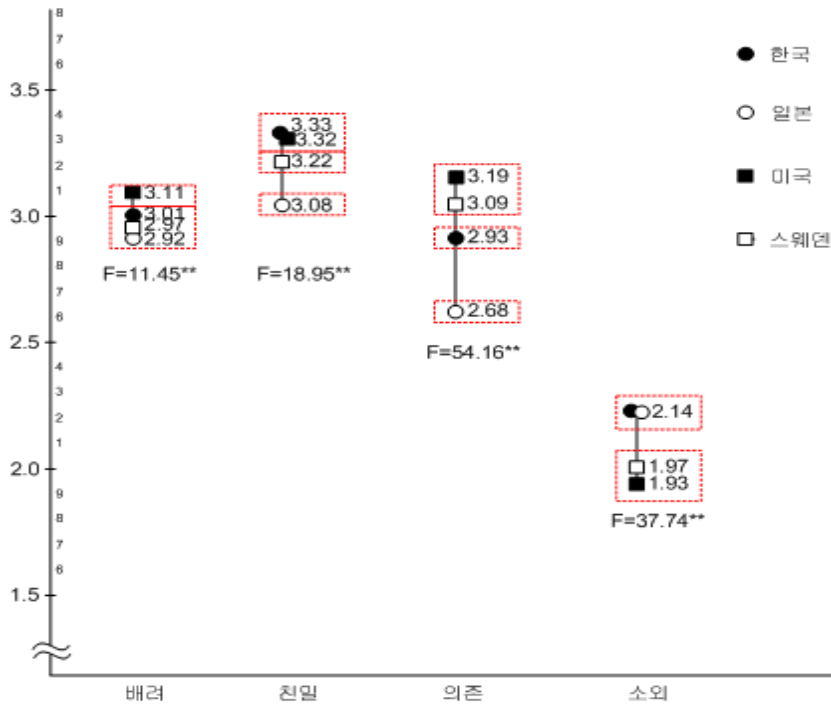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로 4개국 모두 친한 친구는 주로 학교 친구이며, 이들과 함께 주로 노래방이나 쇼핑몰, 음식점, PC방 혹은 동아리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한국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PC방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반면에 여자 청소년은 노래방과 쇼핑몰, 음식점, 도서관, 공원 등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일본은 남자청소년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노래방, 오락실, 쇼핑몰, 음식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미국은 여자 청소년이 종교기관, 음식점, 도서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남자 청소년은 오락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스웨덴 역시 남자 청소년이 오락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여자 청소년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4개국 모두 쇼핑몰에서 보내는 시간은 여자가 남자의 2-3배 많았다.

4) 친구 관계의 특성

친구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2007년 설문지, 문7(1-12, 14-23, 25-29번))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 한 결과, 친구 관계를 나타내 주는 특성이 4가지(배려, 친밀, 의존, 소외)로 묶여졌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V-34> 친구관계 문항

친구 관계	문항
배려	(16)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7) 내 친구들은 내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준다. (18) 내 친구들은 내일에 대해 항상 걱정해 준다. (19) 내 친구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20) 내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바로 알아차린다. (21) 내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22)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준다. (25) 내 친구들은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26) 내 친구들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27)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28)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친밀	(4)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싶다. (5)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2) 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14)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의존	(1)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에게 의견을 묻는다. (7) 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9)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내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11)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거리낌 없이 말한다. (29) 친한 친구라면 무엇이든 같이 해야 한다.
소외	(2)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3)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6)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8)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23)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28)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그림 IV-6] 친구 관계의 특성

<표 IV-35> 배려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88 (314)	3.13 (340)	-6.69**	3.03 (279)	2.99 (319)	.95	3.01 ^b (654)	11.45**
일 본	2.77 (138)	3.08 (130)	-5.55**	2.86 (90)	2.93 (158)	-1.08	2.92 ^b (268)	
미 국	2.87 (295)	3.29 (392)	-11.01**	3.09 (192)	3.15 (377)	-1.31	3.11 ^a (689)	
스웨덴	2.85 (113)	3.09 (120)	-4.36**	3.00 (89)	2.99 (103)	.05	2.97 ^b (233)	

**p<.01

<표Ⅳ-36> 친밀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3.21 (315)	3.44 (338)	-5.50**	3.35 (278)	3.31 (320)	.83	3.33 ^a (653)	18.95**
일 본	3.04 (138)	3.12 (130)	-1.39	3.06 (90)	3.09 (158)	-.46	3.08 ^c (268)	
미 국	3.25 (295)	3.36 (393)	-3.29**	3.27 (192)	3.35 (377)	-2.00*	3.31 ^a (690)	
스웨덴	3.14 (113)	3.29 (120)	-2.83**	3.20 (89)	3.25 (103)	-.80	3.22 ^b (233)	

*p<.05, **p<.01

<표Ⅳ-37> 의존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82 (315)	3.03 (340)	-4.59**	2.97 (279)	2.91 (320)	1.30	2.93 ^b (655)	54.16**
일 본	2.55 (138)	2.82 (130)	-4.05**	2.63 (90)	2.71 (158)	-1.04	2.68 ^c (268)	
미 국	3.02 (295)	3.31 (394)	-6.37**	3.11 (192)	3.26 (377)	-2.73**	3.19 ^a (691)	
스웨덴	2.94 (113)	3.23 (120)	-3.90**	3.09 (89)	3.11 (103)	-.18	3.09 ^a (233)	

**p<.01

<표IV-38> 소외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13 (315)	2.15 (340)	-.67	2.15 (279)	2.14 (320)	.33	2.14 ^a (655)	37.74 ^{**}
일 본	2.16 (138)	2.11 (130)	.87	2.12 (90)	2.15 (158)	-.57	2.14 ^a (268)	
미 국	1.95 (295)	1.91 (394)	1.31	1.92 (192)	1.92 (377)	.08	1.93 ^b (691)	
스웨덴	2.02 (113)	1.92 (120)	1.85	2.01 (89)	1.95 (103)	.99	1.97 ^b (233)	

^{**}p<.01

배려(care)는 친구가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내가 힘들 때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친밀(intimacy)은 현재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겁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의존(dependency)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친구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소외(alienation)는 친구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친구들의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청소년이 배려, 친밀, 의존에서는 가장 높게, 소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교우관계가 4개국 중 가장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보호, 친밀, 의존은 가장 낮게, 소외는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교우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친구관계의 희박화”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친구관계에서의 소원함과 열은 유대감을 나타내준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친밀은 그 정도가 높지만 친구로부터의 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 속에서의 소외를 경험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친구관계가 친밀과 소외라는 양가가치(ambivalence)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미국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의존과 낮은 소외, 중간 정도의 친밀을 나타냄으로써 교우관계의 질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소외를 제외한 3가지 특성에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일본의 친밀 변인만 제외하고 4개국 모두 여자 청소년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배려나 친밀, 의존성과 같은 측면은 다분히 여성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그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의 친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의 조언을 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에게 친구는 친밀하고 즐겁게 지내는 존재이거나 힘들 때 도와주고 의지가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친구와 관련된 가치로는 놀랍게도 56%(32명 중 18명)가 ‘경쟁’을 선택함으로써 학업과 관련된 경쟁 모드가 친구관계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한국청소년의 친구에 대한 감정은 친밀함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 결과를 참고해 보면, 친구관계에서 경쟁을 떠올리는 주된 이유로, “친구들과 공부로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서”, “부러운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친구라도 대학 진학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등 경쟁자로서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쟁과 함께 기쁨도 많이 언급된 가치인데, 주된 이유로는 “나를 재미있게 해주어서”, “옆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구가 배려하고 양보해 주어서”, “힘들 때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친구로 인해 마음의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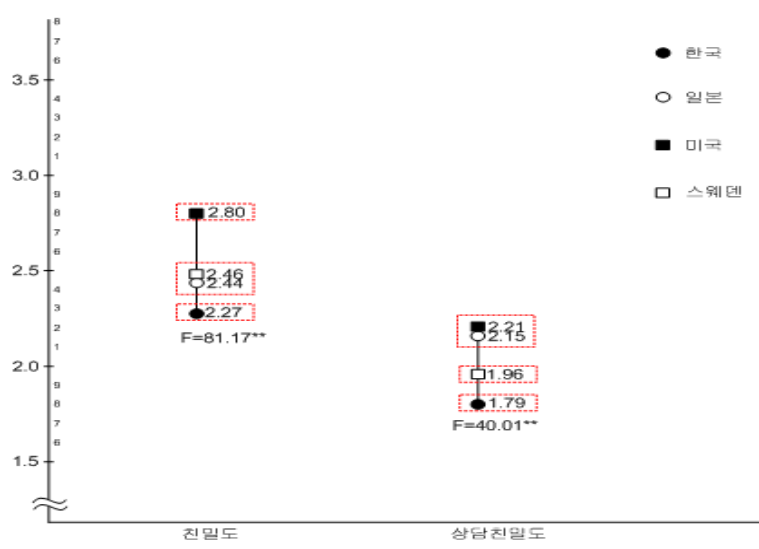
미국 역시 친구관계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상호신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들과 동류의식이 강할 때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한 청소년의 경우는 불안정이나, 배신, 경쟁 등의 가치를 떠올렸는데, 이들은 이전에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경

힘이 있거나 친구들과 일탈행위를 같이 하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어떤 경험을 같이 하면서 우정을 쌓아 가느냐 하는 것이 친구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청소년에게 친구는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지로서의 개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드러났는데, 신뢰를 통한 우정의 관계는 매우 편안하고, 사적인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친구 간에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이해는 우정의 유지에 중요한 측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방과 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도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우정은 오랜 시간을 두고 청소년의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자원이 되고 있다.

3. 교사-학생 관계

1) 친밀도



[그림 IV-7] 교사와의 친밀도

<표 IV-39> 교사와의 친밀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23 (309)	2.31 (338)	-1.52	2.26 (275)	2.31 (316)	-.88	2.27 ^c (647)	81.17**
일 본	2.33 (138)	2.56 (129)	-2.73**	2.27 (90)	2.50 (157)	-2.60*	2.44 ^b (267)	
미 국	2.79 (289)	2.80 (395)	-.32	2.75 (189)	2.83 (377)	-1.48	2.80 ^a (685)	
스웨덴	2.48 (111)	2.44 (119)	.63	2.40 (87)	2.52 (103)	-1.90	2.46 ^b (230)	

*p<.05, **p<.01

<표 IV-40> 상담친밀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1.83 (309)	1.75 (337)	1.64	1.77 (275)	1.81 (315)	-.85	1.79 ^c (646)	40.01**
일 본	2.07 (138)	2.23 (129)	-1.77	1.98 (90)	2.23 (157)	-2.49*	2.15 ^a (267)	
미 국	2.16 (288)	2.24 (394)	-1.29	2.28 (187)	2.17 (377)	1.45	2.21 ^a (683)	
스웨덴	1.99 (110)	1.94 (119)	.60	1.86 (87)	2.07 (103)	-2.30*	1.96 ^b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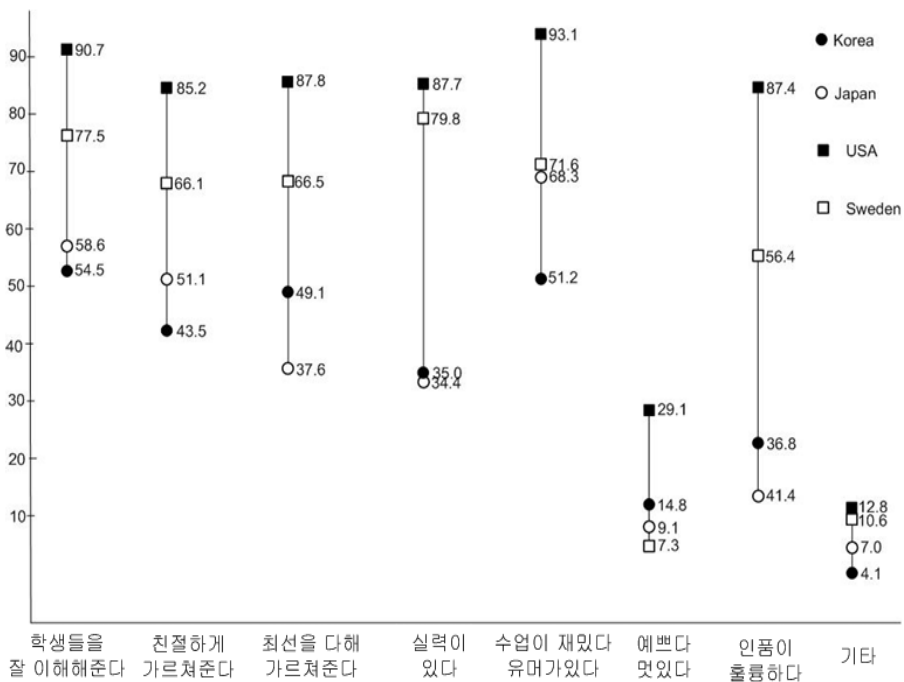
*p<.05, **p<.01

교사와의 친밀도는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선생님을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담 친밀도는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을 털어 놓을 선생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친밀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과 스웨덴이며, 한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이 문제가 있을 때 교사에게 상담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담 친밀성의 경우 역시 미국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는 역할모델(role model)로서 중요한 사회화 에에전트이다. 한국 청소년이 교사와 정서적인 유대를 낮게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역할모델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년이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간관계는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이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가 형성되지만, 교사-학생 간의 관계는 위계를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청소년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화되는 내용과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화되는 내용이 다르다. 수평관계와 수직관계 모두에서 사회화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이 학교이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청소년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이 이

두 관계 속에서 질적으로 미약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회화의 장으로서의 학교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교사와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교사와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성차도 나타났는데 남자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교사와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에 대한 선호도



[그림 IV-8] 교사에 대한 선호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유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은 질문 문항에 대한 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은 질문 문항에 대한 선택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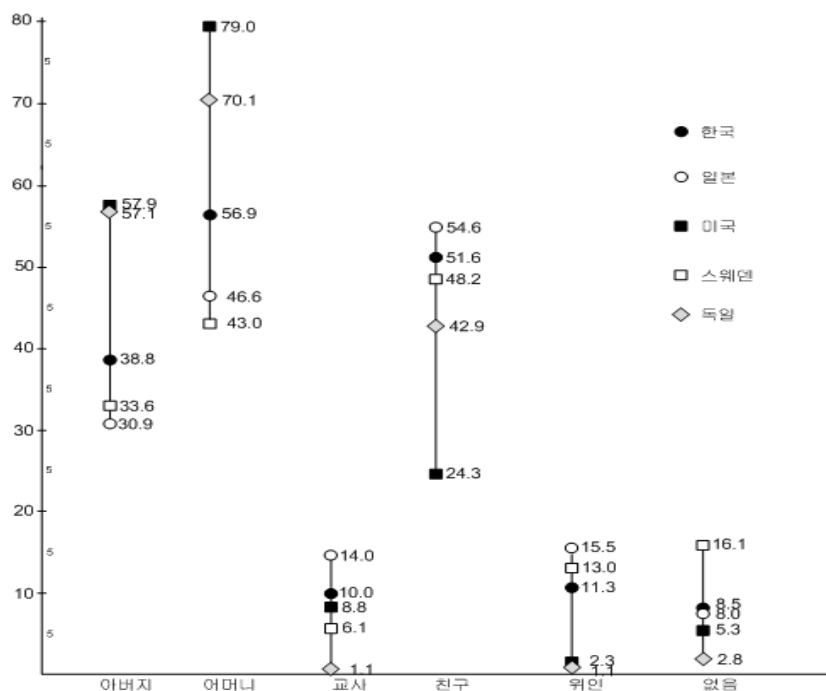
미국 청소년은 교사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7가지 문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교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실력이 있고 수업을 잘 이끌며, 인품도 훌륭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사가 수업에 열심히 임하는 것과 인간적인 훌륭함이 교사 선호의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미국만큼 높지는 않지만,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교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경우 좋아하는 교사의 수가 적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학생들을 잘 이해해 준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배려가 교사 선호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 가르쳐 준다”, “실력이 있다”,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등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수업상황과 관련된 변인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품이 훌륭하다”는 “예쁘다, 멋있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선택됨으로써 교사의 인품 보다는 교사의 교수 기술과 관련된 요인이 교사의 선호도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중응답이므로 더 이상의 분석을 하지 않았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참고해 보면, 한국 청소년들은 교사가 자신을 잘 이해해 주고 칭찬을 잘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고,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것과 체벌자제와 같은 사항을 교사에게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교사가 자신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한다거나, 부당한 체벌을 가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교사의 선호도에 대한 양적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사가 자신을 잘 이해해 준다거나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교사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4개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청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가까운 선생님의 유무가 학교에 대한 긍정

적인 느낌으로 연결되고 있었고, 교사가 무능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청소년 역시 실력이 있고, 겸손하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격의 없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권위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인품이 모자라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의 거리를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4.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과 만족도

1)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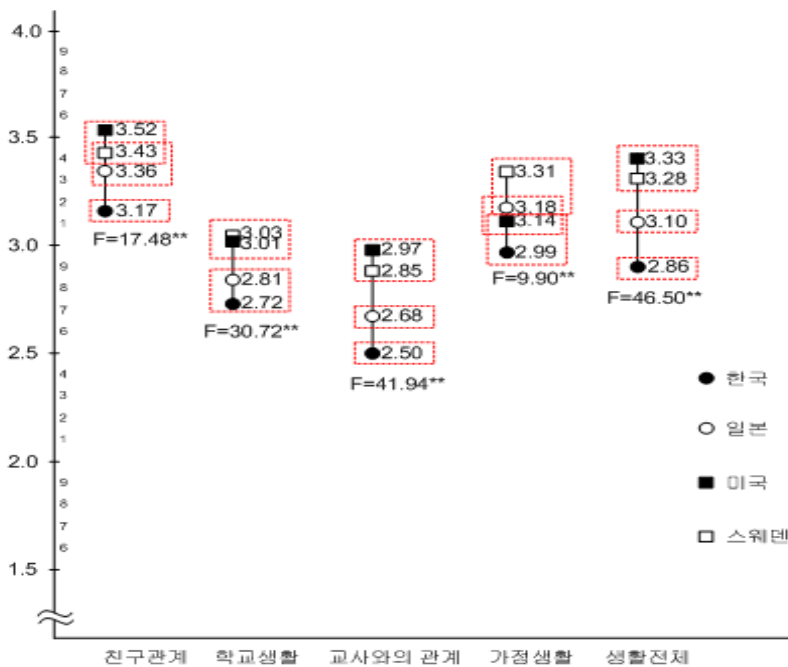
[그림 IV-9]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지목한 대상은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부모의 영향력과는 대비되게 친구와 교사의 영향력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역시 양 부모가 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스웨덴은 양 부모보다는 친구가 청소년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경우 친구관계의 희박화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반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 해석의 어려움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응답을 할 때, 청소년들이 마음에 두고 응답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해석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흥미로운 것은 4개국 모두 교사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청소년기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교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교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고찰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사라는 사람이 각 문화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4개국 모두 교사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낮은 이유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참고해 보면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학교와 관련하여 교사의 의미가 작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일을 할 뿐이며, 교사는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관계일 뿐이며, 교사와는 감정적인 끈이 없는 사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제간의 관계를 중요시해왔던 한국과 일본은 타 국가 보다 교사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른 사회화 에이전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영향력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대다수가 네트워크 분석에서 학교 영역에 교사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위치시키고는 있지만, 다른 사회화 에이전트와 비교해 본다면 네트워크의 강도는 미약함을 짐작할 수 있다.

2) 만족도



[그림 IV-10] 만족도

<표 IV-41> 친구관계 만족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3.19 (314)	3.15 (340)	.75	3.14 (280)	3.20 (317)	-1.12	3.17 ^c (654)	17.48**
일 본	3.36 (138)	3.36 (129)	-.02	3.28 (90)	3.40 (157)	-1.30	3.36 ^b (267)	
미 국	3.46 (278)	3.56 (385)	-1.86	3.49 (179)	3.56 (368)	-1.25	3.52 ^a (664)	
스웨덴	3.31 (107)	3.54 (115)	-2.44*	3.36 (86)	3.51 (98)	-1.44	3.43 ^{a,b} (222)	

*p<.05, **p<.01

<표 IV-42> 학교생활 만족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67 (314)	2.77 (340)	-1.67	2.74 (280)	2.72 (317)	.20	2.72 ^b (654)	30.72**
일 본	2.80 (138)	2.83 (130)	-.29	2.57 (90)	2.89 (158)	-2.65**	2.81 ^b (268)	
미 국	3.00 (280)	3.02 (386)	-.24	2.98 (179)	3.06 (371)	-1.24	3.01 ^a (667)	
스웨덴	2.96 (106)	3.10 (115)	-1.43	3.00 (86)	3.13 (97)	-1.32	3.03 ^a (221)	

**p<.01

<표 IV-43> 교사와의 관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45 (313)	2.54 (340)	-1.37	2.47 (279)	2.55 (317)	-1.25	2.50 ^c (653)	41.94 ^{**}
일 본	2.61 (138)	2.76 (130)	-1.44	2.52 (90)	2.73 (158)	-1.84	2.68 ^b (268)	
미 국	3.00 (278)	2.95 (386)	.96	2.92 (178)	3.02 (371)	-1.65	2.97 ^a (665)	
스웨덴	2.88 (104)	2.83 (115)	.44	2.81 (85)	2.85 (96)	-.43	2.85 ^a (219)	

**p<.01

<표 IV-44> 가정생활 만족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98 (314)	3.00 (340)	-.31	2.94 (280)	3.06 (317)	-1.84	2.99 ^c (654)	9.90 ^{**}
일 본	3.09 (138)	3.27 (130)	-1.90	3.07 (90)	3.22 (158)	-1.56	3.18 ^{a,b} (268)	
미 국	3.15 (278)	3.13 (386)	.29	3.15 (179)	3.16 (371)	-.14	3.14 ^b (665)	
스웨덴	3.26 (106)	3.35 (115)	-.79	3.30 (86)	3.36 (97)	-.51	3.31 ^a (221)	

**p<.01

<표 IV-45> 생활전체 만족도

	성별		t	아버지의 학력		t	전체평균	F
	남	여		고졸이하	대졸이상			
한 국	2.89 (314)	2.83 (340)	1.02	2.82 (280)	2.93 (317)	-1.94	2.86 ^c (654)	46.50 ^{**}
일 본	3.05 (138)	3.16 (130)	-1.19	2.97 (90)	3.16 (158)	-1.94	3.10 ^b (268)	
미 국	3.37 (279)	3.30 (386)	1.11	3.27 (179)	3.36 (371)	-1.24	3.33 ^a (666)	
스웨덴	3.33 (106)	3.24 (116)	.90	3.23 (86)	3.37 (98)	-1.30	3.28 ^a (222)	

**p<.01

청소년과 관련된 삶의 여러 부분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만족도의 수준이 높았고, 일본과 한국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줄 수 있다. 생활 전체를 제외한 4가지 영역에서 각국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순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친구관계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생활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조차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주요 사회화 에이전트인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사회화 기반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도 살펴 본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한국 청소년의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탄탄하지 못하고 여러 사회화 에이전트와 경험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관계 유형은 지지, 억압, 통제, 갈등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5개국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억압에 있어서는 양 부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 지지는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지지는 독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남으로써, 양 부모로부터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억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억압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비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통제 역시 한국 청소년이 높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통제는 미국, 독일, 스웨덴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도 한국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의 모습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비교 국가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긍정적인 국가는 스웨덴이었다. 스웨덴 청소년은 억압이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에서도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현재의 부모의 양육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70%나 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모습이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조사 참여 청소년의 66%가 지금의 부모처럼 양육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만족한다는 의사표현은 다분히 주관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불만을 표현한다고 해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한국 부모의 헌신성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부모의 헌신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다른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스웨덴 청소년은 가족이 모든 삶의 근본이 되고 가정이 원만해야 다른 영역에서의 삶도 행복하다는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처럼 가정에 무게 중심을 두는 측면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부모는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헌신성으로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녀가 어려움을 때 기댈 수 있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 역시 부모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가정을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키워나가는 장으로서 인식하는 성숙함이 요구된다.

2) 친구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구 간의 밀도와 친구의 소속, 친구와 함께 보내는 장소는 친한 친구 4명을 거명하고 난 후에 그 친구들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응답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석은 친한 친구 4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먼저 친구의 밀도는 일본과 미국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 청소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의 교우관계는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청소년의 친구 밀도는 일본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친한 친구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비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들은 주로 같은 학교나 학급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스웨덴의 경우는 방과 후에 과외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친한 그룹에 속해 있는 정도가 높았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

내는 장소도 학교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들은 주로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남학생은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친구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은 배려, 친밀, 의존, 소외로 축약되었는데, 미국의 청소년이 배려, 친밀, 의존에서는 가장 높게, 소외에서는 가장 낮아 비교 국가 중 가장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청소년은 이와는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 배려, 친밀, 의존은 가장 낮게, 소외는 가장 높았다. 한국 청소년은 친밀과 소외라는 함께 하기 어려운 요인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한국의 청소년이 직면한 극심한 학업 경쟁 상황에서 친구는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타인과의 경쟁을 일찍부터 경험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친구는 항상 경쟁자로 옆에 있어왔지만, 가족관계에서 얻는 것과는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친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쟁자로서의 친구와 즐거움을 주는 자로서의 친구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친밀성은 청소년들이 교사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상담친밀성은 문제가 있을 때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4개국 모두 교사 친밀성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다.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모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들이 알고 있는 자녀로서의 모습과 교사가 알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모습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교사는 부모가 모르는 청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

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부모와는 다른 시각에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상담자이다. 이러한 교사와의 친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 청소년이 인생의 설계를 세울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교사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이 교사 선호 이유의 각 영역에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응답 비율이 매우 낮았다.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이 교사를 선호하는 이유로 선택한 것은 학생들을 잘 이해해주며, 인품이 훌륭하고, 교수기술이 뛰어날 때 등이었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이 부분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교사 선호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중응답이었기 때문에 교사를 좋아하는 이유를 횡수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낮다는 것은 주변에 선호하는 교사가 적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교사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약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교사가 주변에 없다는 것은, 인생의 귀감이 되는 스승이 없다는 의미에서 청소년의 학교 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전통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여겨지고 있었던 교사-학생의 관계가 미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 현장이 경쟁의 장이 되고, 모두 다 탁월한 점수를 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전인교육이라는 중요한 목표는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느슨한 교사-학생관계는 본 연구 결과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청소년의 사회화는 그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불만족과 경쟁자로서의 친구, 교사와의 친밀감이 낮고 선호하는 교사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3가지 사회화 에이전트와의 관계가 모두 탄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다는 것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한국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병리현상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개인의 건강한 발달은 곧 사회의 건강한 모습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한국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화를 위한 유관 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 정책제언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회화 주체인 부모, 친구, 교사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자원으로써 빈곤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은 청소년들 개개인이 건전한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미래사회의 성장의 동력을 양성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사회화 주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계성의 회복을 이 연구에서는 사회화과정의 회복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점차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보다는 이러한 관계성의 회복에서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사회화과정의 회복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가치가 어떤 방향을 흘러가든 이러한 관계성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사실과 현상적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화주체들과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연구결과로부터 발견사실은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문제, 즉 사회화주체들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각각의 주체들과의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각의 문제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들이 각각의 주체들과 원만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에 보다 직접적인 제약은 이들이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시간의 문제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정적 제약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를 정책의 측면에서 풀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미 2006년과 2007년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고서들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막연하게 모든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모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상담기관에서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문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1)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중심, 대상중심별 맞춤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시설이나 쉼터의 보호대상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한 교육내용을 담아야 하며, 프로그램운영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② 부모교육 매뉴얼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문제에 봉착할 경우 각 아동·청소년관련 전문기관(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쉼

터 등)에서 부모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

③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가 교육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정 상담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부모들의 접근을 높이되, 특히 소외계층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검증 및 평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평가를 통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효과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유인책

①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 참여 유인책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되, 프로그램은 중앙부처에서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부터 부모교육프로그램 시범학교를 운영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통하여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지역의 상담지원센터는 학교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상담지원센터는 서비스의 직접 수행보다는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는 학교지원기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학교의 부족한 전문인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지원센터는 학교에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지원해야 한다.

③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각 지역의 학교내 상담소와 지역의 대학상담소 및 정신건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역사회인력풀을 구축하여, CYS-net의 전문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장애 아동청소년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되,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의 무료건강검진서비스(바우처 등)를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CYS-net를 통해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친구관계

친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교나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의 폭을 넓힐 기회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자원을 풍부히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동아리 활동의 적극적 지원

본 연구를 통해서 실시한 두 차례의 비교조사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청소년들은 동아리활동을 친구관계 형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등의 결과로부터 그나마 활동참여의 매개가 되는 것이 동아리활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화환경 조성에서 강조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히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동아리활동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동아리활동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동아리활동의 영역을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일단 지원한 후에는 지원된 동아리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투자라는 인식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력경쟁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공계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활동 동아리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동아리를 연계하여 자발적인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초중등학교 과학교실을 대학의 학과 및 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지역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청소년들과 연령적으로 차이가 적은 대학생들의 청소년들을 지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청소년참여활동 장려

학교내 자치기구 활성화는 학교내의 전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유럽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자치활동이 저조했던 핀란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내 활동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단위학교간 자치활동을 지역사

회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로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헬싱키의 경우는 ‘헬싱키 청소년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young in Helsinki)’를 통하여 헬싱키 지역의 학생참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학교내 전반적인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참여보다는 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은 상위수준의 참여기구는 발달해 있으나, 일상적인 참여, 특히 학교내에서의 참여를 진작시키는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아 전반적인 참여의 수준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자치활동 시범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시범학교지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학교자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참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학교의 자원이 확보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 외부의 자원을 학교로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활동진흥센터는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서야 한다. 각 지역의 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과 활동프로그램 자원지도를 제작하여 지역의 각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가 적극적으로 연계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도 해야 한다. 향후에는 지역의 학교활동 지원정도가 활동진흥센터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활동진흥센터가 명실공히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진작하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청소년참여활동장려

「최소활동이수제」, 「청소년활동표준권고안」, 「청소년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활동성취포상제」 등 청소년들의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많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낮은 것과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 활동의 보장은 청소년의 「발달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의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청소년정책 중 이른바 활동정책은 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한국 청소년들의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얼마나 활동참여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역량개발에 얼마나 저해가 되는지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사와의 관계

교사들은 무엇보다 교과전문가로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 성직으로서의 교사상과 같은 전통적인 교사상으로는 현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서적인 지지는 물론이요, 교과전문가로서 학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 교사들이 교과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학교내의 상담이나, 문제의 진단, 문제의 처치, 동아리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학교의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는 교수학습의 장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장소가 되고, 동시에 다양한 일상생활의 지도가 보다 전문적으로 될 수 있다.

① 「지역사회 학교지원단」의 운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청소년시설과 단체, 그리고 기타 아동청소년관련 시설을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아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학교지원체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학교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지역의 모든 자원이 학교를 지원하고 이로써 학교 밖의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지원 및 배치

교사들이 교과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상담, 복지지원,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학교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배치는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상담사나 활동지도 전문가를 지역사회의 전문가, 특히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특별활동, 재량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을 교사가 효과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활동지원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기금 사업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전문 지도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로써 학교전반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활동의 긍정적인 결과가 입증된다면, 자연스럽게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의 자원, 즉 사회적 지자 자원이 풍요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윤주(2001). 청소년기 초기의 부모-자녀 및 친구관계-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개념을 적용한 한국과 독일 비교 연구-. 한독교육학연구, 6(1), 1-18.
- 고윤주 · 이은혜 · Mendelson, M. J.(2002).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 비교 연구: 친구의 지원, 갈등해결 방식 및 친구관계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18.
- 김경숙 · 박미금(2000). 중 ·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1), 33-45.
- 김대중(1997). 학교교육의 사회화 기능에 대한 이론적 접근. 아동교육, 6(1), 68-82.
- 김성일(2005).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발달을 위한 사회화 방법. 청소년학연구, 12(3), 193-222.
- 김성일, 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75-89
- 김소희 · 오윤자(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 · 적응성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5(4), 313-27.
- 김영희, 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 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 김은지, 박성연(2002).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3(3), 187-203.
- 김현철 · 김은정 외(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 · 김은정 · 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영옥 · 김재한(2003). 알코올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의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1), 199-221.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0(3), 105-125.
- 문은정 · 심희옥(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민병기(2002).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부진, 김효원(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체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생활연구, 12, 129-148.
- 박소라 · 김은미 · 나은영(2007).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화 및 유형별 친구관계의 특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 39-81.
- 박영신 · 김의철(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 87-115.
- 배선영 · 이은혜(2001).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5, 80-88.
- 백경숙, 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손동원(2005).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 신효식, 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47-58.
- 안현정, 이소희(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1), 65-81
- 양현아, 박영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대처 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847-860.
- 오미경, 박성연(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11-227.
- 유선이 · 김광웅(1999). 아동의 우정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4, 85-106.
- 이경아 · 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 이상길(2006).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를 비롯한 학교 변인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613-627.
- 이상미 · 김의철 · 박영신(2006). 청소년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와 불신: 토착심리학적 접근. 아동교육, 15(4), 297-312.
- 이순형 · 이영미(1997).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4(1), 1-24.
- 이영숙,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유경 · 채규만(2006). 컴퓨터 게임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711~726.
- 이장주, 최상진(2003). 부자유친성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87-104.
- 이희자, 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83-295
- 이진숙 · 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5.
- 장해순, 강태완(200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정영숙, 김영희, 박경옥, 이희숙, 채정현, 이종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175-197.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아미 · 방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75.
- 팜 프옥 마잉 · 이진희 · 신인숙(2007). 베트남과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아동교육, 16(2), 235-52.
- 최정미 · 김미란(2008).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94.
- 최지은 ·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허철수 · 양민철(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7(1), 15-36.
- 홍혜란, 하지영, 서소정(2008).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어머니의 친사회성 중요도에 관한 신념 및 사회화전략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 Arnett, J. J.(1995). Adolescents' uses of media for self-socialization (Special Issues: Adolescents' Uses of the Medi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39-561.
- Azmitia, M.(2002). Self, self-esteem, conflict, and best friendships in early adolescence. In T.M. Brinthaup, & R.P. Lipka. *Understanding early*

- adolescent self and identity: Applications and interventions*(pp. 167-192).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aker, J.A., Grant, S., & Morlock, L.(2008).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s a developmental context for children with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3(1), 3-15.
- Barnes, L. H.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7.
- Berndt, T.J.(2004). Children's friendships: Shifts over a half-century in perspectives on their development and their effects.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06-223.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42.
- Brooks-Gunn, J., Guo. G., & Furstenburg, F.(1993). Who drops out of and who continue beyond high school? A 20 year follow-up of urban black yout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3), 271~94.
- Bukowski, W. M., Boinin, M & Hoza, B.(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1, 471-84.
- Bumpus, M., & Hill, L.(2008). Secrec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during middle childhood: Associations with parental knowledge and child adjustment. *Parenting*, 8(2), 93-116.
- Chen, E., and Berdan, L. E.(2006). Socioeconomic and patterns of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1), 19~27.
- Conway, A.M..(2005). Girls,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334-339.
- Cunningham, S.D., Thomas, P.D., & Warschausky, S.(2007). Gender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 of children with neurodevelopmental conditions. *Rehabilitation Psychology*, 52(3), 331-337.
- Dijkstra, J.K., Lindenberg, S., & Veenstra, R.(2007). Same-gender and cross-gender peer acceptance and peer rejection and their relation

- to bullying and helping among preadolescents: Comparing predictions from gender-homophily and goal-framing approach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377-1389.
- Dishion, T.J., & Owen, D.(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friendship and substance use: Bidirectional influence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480-491.
- Ekstrom, R. B., Goertz, M. E., Pollack, J. M. and Rock, D. A.(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3), 356~73.
- Fabes, R.A., Martin, C.L., & Hanish, L.D.(2004). The next 50 years: Considering gender as a context for understanding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60-273.
- Flook, L., Repetti, R.L., & Ullman, J.B.(2005). Classroom social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1(2), 319-327.
- Fong, V.L.(2007). Parent-child communication problems and the perceived inadequacies of Chinese only children. *Ethos*, 35(1), 85-127.
- Furman, W.(1982). Children's friendship. In T. H. Feild, A. Huston, H. C. Quay, L. Troll & Finley(Eds). *Review of Human Development*(pp. 332~336). New York Wiley.
- Gentzler, A., Contreras-Grau, J.M., Kerns, K.A., & Weiner, B.L.(2005). Parent-child emotional communication and children's coping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4(4), 591-612.
- Glossop, R. G.(1988). Bronfenbrenner's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cological research with children and familie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Goldstein, S.E., Davis-Kean, P.E., & Eccles, J.S.(2005). Parents, peers, and problem behavior: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he impact relationship perceptions and characteristics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1(2), 401-413.
- Hessler, D.M., & Katz, L.F.(2007).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elf-report and physiological response to peer provo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 43(1), 27-38.
- Hirs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glund, W.L.G.(2007). Schoo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Gender-linked responses to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4), 683-699.
- Jaccard, J., Blanton, H., & Dodge, T. (2005). Peer influences on risk behavior: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close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35-147.
- Kim, U., Park, Y., & Koo, J. (2005). Adolescent culture, socialization practice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Indigenous, psych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특집호), 177-209.
- Larson, D.(2003). Online Dispute Resolution: Do you Know Where Your Children Are?. *Negotiation Journal*. 199~205.
- Leary, A., & Katz, L.F.(2005). Observations of aggressive children during peer provocation and with a best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24-134.
- Lutz, W.J., Hock, E., & Kang, M.J.(2007). Children's communication about distressing events: The role of emotional openness and psychological attributes of family memb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1), 86-94.
- Mounts, N. S.(2001). You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management of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92~122.
- _____.(2007).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perceptions of parental management of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1), 169~78.
- Orleans, M. and Larson, M. C.(2000). Children's computer use in the home: Isolation or socialization?.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8(1), 56~72.
- Osterberg, V. (2003). Children in classrooms: Peer status, status distribution and mental well-being. *Social Science & Medicine*, 56, 17-29.
- Otten, R., Harakeh, Z., Vermulst, A.A., Van den Eijnden, R.J.J.M., & Engels,

- R.C.M.E.(2007). Frequency and quality of parental communication as antecedents of adolescent smoking cognitions and smoking onset.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1(1), 1-12.
- Parker, J. G. and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21.
- Piehler, T.F., & Dishion, T.J.(2007). Interpersonal dynamics with adolescent friendships: Dynamic mutuality, deviant talk and patterns of anti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5), 1611-1624.
- Poulin, F., & Pedersen, S.(2007). Developmental changes in gender composition of friendship networks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84-1496.
- Robinson, J. P., Kestnbaum, M., Neustadt, A., and Alvarez, A.(2001). Mass media use and social life among internet user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8(4), 490-501.
- Stuart, J., Fondacaro, M., and Miller, S. A.(2008). Procedural justice in family conflict resolution and deviant peer group involvement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influence of peer conflict.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7, 674-84.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 Wallenius, M., Punam ki, R.L., & Rimpel , A.(2007). Digital game playing and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s of age, social intelligenc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3), 325-336.
- Way, N., & Robinson, M.G.(200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family, friends, and school experiences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ethnic minority, low SE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24-346.
- Whitlock, J.L., Powers, J.L., & Eckenrode, J.(2006). The virtual cutting edge: The internet and adolescent self-injury.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407-417

부 록

1. 2006년 설문지(한국어)
2. 2007년 설문지(한국어)

청소년들의 가족생활과 가족에 대한 의식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금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족생활과 가족에 대한 의식을 비교조사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02-2188-8836)/김은정(02-2188-8802)

설문응답에 대한 부탁의 말씀

1. 질문의 번호 순서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 질문에 따라서는 특정한 분만 응답하셔야 합니다. 문항 위에 표시된 지시문 (예: → 문(문 2-1)로 가세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3. 부모님에 관한 질문 중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4. 질문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한 곳**에만 체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5. 각 문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주시고, ()나 기타()의 괄호 안에 가급적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SQ 1 당신의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 남성 ___② 여성

SQ 2 당신은 몇 년생이십니까? 19 년

SQ 3 당신은 어떤 학교에 다니십니까?

___① 중학교 ___② 고등학교(인문계) ___③ 고등학교(실업계)
 ___④ 기타()

SQ 4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___① 1학년 ___② 2학년 ___③ 3학년

SQ 5 당신은 현재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___① 대도시 ___② 중·소도시 ___③ 읍·면지역

SQ 6 당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① 상 ___② 중상 ___③ 중 ___④ 중하 ___⑤ 하

※ 다음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 당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친척, 기타의 경우는 몇 명인지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 | | | |
|---------------|--------------------|----------------------------|
| ___① 친아버지 | ___⑦ 외할아버지 | |
| ___② 친어머니 | ___⑧ 외할머니 | |
| ___③ 양아버지(계부) | ___⑨ 남자형제 | ☐ 명 |
| ___④ 양어머니(계모) | ___⑩ 여자형제 | ☐ 명 |
| ___⑤ 친할아버지 | ___⑪ 친척 | ☐ 명 |
| ___⑥ 친할머니 | ___⑫ 기타 () | ☐ 명 |

문 2 당신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를 안 다녔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원 이상	모르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 3 당신의 아버지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___① 예(→ 문 **문 3-1** 로 가세요) ___② 아니오(→ 문 **문 4** 으로 가세요)

문 3-1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한 후 가급적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적어 주십시오.

(예) 회사원 (은행차장, 자동차 영업사원, 중소제조업체 부장 등)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자영업 (음식점 주인, 소매상점 등)
 기능·노동직 (배관 숙련공, 건설현장 인부 등)

- | | |
|--------------------------------|-----------------------------------|
| ___① 교수() | ___⑩ 성직자() |
| ___② 교사() | ___⑪ 법조인() |
| ___③ 회사원() | ___⑫ 방송인() |
| ___④ 공무원() | ___⑬ 예술가() |
| ___⑤ 사업가() | ___⑭ 스포츠인() |
| ___⑥ 의료인() | ___⑮ 연예인() |
| ___⑦ 연구원() | ___⑯ 기능·노동직() |
| ___⑧ 경찰() | ___⑰ 자영업() |
| ___⑨ 군인() | ___⑱ 기타() |

문 3-2 아버지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___①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___② 전일제 근로(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문 4 당신의 어머니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___① 예(→ **문 4-1** 로 가세요)

___② 아니오(→ **문 5** 로 가세요)

문 4-1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한 후 가급적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적어 주십시오.

(예) 회사원 (은행차장, 자동차 영업사원, 중소제조업체 부장 등)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자영업 (음식점 주인, 소매상점 등)
 기능·노동직 (배관 숙련공, 건설현장 인부 등)

- | | |
|------------|---------------|
| ___①교수() | ___⑩성직자() |
| ___②교사() | ___⑪법조인() |
| ___③회사원() | ___⑫방송인() |
| ___④공무원() | ___⑬예술가() |
| ___⑤사업가() | ___⑭스포츠인() |
| ___⑥의료인() | ___⑮연예인() |
| ___⑦연구원() | ___⑯기능·노동직() |
| ___⑧경찰() | ___⑰자영업() |
| ___⑨군인() | ___⑱기타() |

문 4-2 어머니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___①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___② 전일제 근로(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문 5 가정소득(부모님의 수입) 전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기여하고 계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___① 어머니가 전부 번다 | ___④ 아버지가 더 많이 번다 |
| ___② 어머니가 더 많이 번다 | ___⑤ 아버지가 전부 번다 |
| ___③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 번다 | ___⑥ 잘 모르겠다 |

문 6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가사노동에 각각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반반씩한다	아버지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로 한다
(1) 식사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2) 설거지	①	②	③	④	⑤	⑥
(3) 청소	①	②	③	④	⑤	⑥
(4) 세탁	①	②	③	④	⑤	⑥

문 7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의 입장을 듣고 냉정히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2)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3) 서로 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어머니가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5) 아버지가 어머니 의견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6) 어느 한 쪽이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어느 한 쪽이 폭력을 행사한다	①	②	③	④

문 8 당신은 아래 사항을 부모님과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 버 지와				어 머 니와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1)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여행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음악회/영화/박물관관람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TV 시청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9 당신의 부모님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머니는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공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이성관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여가·취미생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진로·진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0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___① 공부해라 | ___⑤ 거짓말 하지마라 |
| ___②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 ___⑥ 절약해라 |
| ___③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 ___⑦ 부지런해라 |
| ___④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 ___⑧ 기타 () |

문 11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___① 공부해라 | ___⑤ 거짓말 하지마라 |
| ___②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 ___⑥ 절약해라 |
| ___③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 ___⑦ 부지런해라 |
| ___④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 ___⑧ 기타 () |

문 12 다음 문항은 당신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에게)				어머니는(와, 에게)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담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아버지/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아버지/어머니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문항은 당신과 부모님과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어머니는(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나는 성적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나는 성격, 태도, 습관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나는 행동 때문에 (아버지/어머니와) 자주 부딪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힐 때 묵묵히 봐주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아버지/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어머니는(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5 **문 14** 의 (1)~(9)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2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1순위_____	1순위_____
2순위_____	2순위_____

문 16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1)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당신이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1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checkmark$ 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①	②
(2)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①	②
(3) 나는 아버지가 싫다	①	②
(4) 나는 어머니가 싫다	①	②

※다음은 당신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8 당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대로 써주십시오.
없는 경우에는 1순위____ 11번을 써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 | |
|--------|----------------------|
| ① 아버지 | ⑦ 선생님 |
| ② 어머니 | ⑧ 친구 |
| ③ 형제자매 | ⑨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 |
| ④ 할아버지 | ⑩ 사회적인 인물, 위인, 정치가 등 |
| ⑤ 할머니 | ⑪ 없다 |
| ⑥ 친척 | ⑫ 기타() |

문 19 다음은 당신과 부모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하는 편이다	자주 한다.
(1) 아버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어머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20 당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내가 하고 싶어서
___ ②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영향으로)
___ ③ 친구 및 주위의 권유로
___ ④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___ ⑤ 종교단체 활동을 통해서
___ ⑥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___ ⑦ 기타()

문 21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 전까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활비(학비 포함)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

___① 중학교 졸업 후
 ___② 고등학교 졸업 후
 ___③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___④ 취업한 이후
 ___⑤ 결혼한 이후
 ___⑥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___⑦ 기타()

—<부모님집으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야 할 시기>—

___① 중학교 졸업 후
 ___② 고등학교 졸업 후
 ___③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___④ 취업한 이후
 ___⑤ 결혼한 이후
 ___⑥ 부모님에게 계속 의존해도 좋다
 ___⑦ 기타()

문 23 다음의 보기 중 당신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2가지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특별한 고민이 없는 경우에는 9번에 체크하고,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공부와 성적 | ⑥ 성격 |
| ② 친구관계 | ⑦ 이성교제 |
| ③ 진로문제(진학/취업) | ⑧ 집안의 경제사정 |
| ④ 가족관계(가족문제) | ⑨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
| ⑤ 외모 | ⑩ 기타() |

문 24 당신은 누구와 고민을 상담하십니까? (가장 자주 고민을 상담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번호를 써주세요.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는 경우 1순위___에 11번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안에 누구인지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___① 아버지 | ___⑦ 친척 |
| ___② 어머니 | ___⑧ 선생님 |
| ___③ 형제자매 | ___⑨ 상담전문기관 |
| ___④ 친구 | ___⑩ 학교상담선생님 |
| ___⑤ 할아버지 | ___⑪ 누구하고도 상담하지 않는다 |
| ___⑥ 할머니 | ___⑫ 기타 () |

문 25 당신은 다음의 활동을 하루(평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1) 폰 메일 사용 (문자)	보내는 문자 () 통
	받는 문자 () 통
(2) 비디오 · 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용	()시간 ()분
(3) TV 시청	()시간 ()분
(4) 학습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시간 ()분
(5) 학원 및 과외공부	()시간 ()분

문 33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여자는 양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6)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7)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남자가 늘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문 34 아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는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2) 한국사회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3) 한국사회는 학력(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4) 한국사회는 인맥(연줄)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5) 한국사회는 혈연이 중요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6) 한국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7)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문 35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칸에 적으신 내용은 설문조사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자 이름: _____ 휴대폰번호(혹은 집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 아래 칸은 조사원이 입력하는 곳입니다. 빈칸으로 놓아두세요.

조사원 이름: _____ 조사일시: _____

검증원 이름: _____ 검증일시: _____ 검증결과: 상 중 하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금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에 대해 비교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 9월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김은정

문의처 : 마켓비전 김부용 019-507-5509

설문응답에 대한 부탁의 말씀

1. 질문의 번호 순서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 질문에 따라서는 특정한 분만 응답하셔야 합니다. 문항 뒤에 표시된 지시문(예: → 문(문 2-1)로 가세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3. 부모님에 관한 질문 중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4. 질문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하는 경우와 **한 곳**에만 체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5. 각 문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주시고, ()나 기타 ()의 괄호 안에는 가급적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SQ 1 당신의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 남성 ___② 여성

SQ 2 당신은 몇 년생이십니까? 19 년

SQ 3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___① 1학년 ___② 2학년 ___③ 3학년

SQ 4 당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① 상 ___② 중상 ___③ 중 ___④ 중하 ___⑤ 하

※ 다음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SQ 5 당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친척, 기타의 경우는 몇 명인지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___① 친아버지	___⑦ 외할아버지
___② 친어머니	___⑧ 외할머니
___③ 양아버지(계부)	___⑨ 남자형제 (명)
___④ 양어머니(계모)	___⑩ 여자형제 (명)
___⑤ 친할아버지	___⑪ 친척 (명)
___⑥ 친할머니	___⑫ 기타 (명)

SQ 6 당신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를 안 다녔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원 이상	모르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SQ 7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개만 고르십시오. (양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___ ① 경영자 · 간부직원
- ___ ② 회사원(정규직)
- ___ ③ 공무원
- ___ ④ 계약사원 · 위탁사원 · 파견사원
- ___ ⑤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 임시직
- ___ ⑥ 자영업 · 자유업 · 가내업종사자
-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 ⑧ 학생
- ___ ⑨ 집에서 가사일만 하심
- ___ ⑩ 직업 없음
- ___ ⑪ 잘 모르겠음

▶ 다음의 (SQ7-1)은 ① ~ ⑦ 에 응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SQ7-1) 그 일은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표는 1개만)

- ___ ① 전문 · 기술계 직업 (의사/변호사/교원/엔지니어/간호사/작가/디자이너 등)
- ___ ② 관리직 (과장 이상의 관리직/의원 등)
- ___ ③ 사무 · 영업직 (사무원/영업사원/은행원/일반공무원 등)
- ___ ④ 판매 · 서비스 계통 직업(가게주인/점원/외판원/미용사/크리닝/급사/접객/청소 등)
- ___ ⑤ 기능, 노무, 작업직 (공장노동자/전문기술직/건설작업자/운전기사 등)
- ___ ⑥ 농업, 임업, 어업직 (식목업, 조경업 포함)
-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 ⑧ 잘 모르겠다.

SQ8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개만 고르십시오. (양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___ ① 경영자 · 간부직원
 ___ ② 회사원(정규직)
 ___ ③ 공무원
 ___ ④ 계약사원 · 위탁사원 · 파견사원
 ___ ⑤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 임시직
 ___ ⑥ 자영업 · 자유업 · 가내업종사자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 ⑧ 학생
 ___ ⑨ 집에서 가사일만 하심
 ___ ⑩ 직업 없음
 ___ ⑪ 잘 모르겠음

▶ 다음의 (SQ8-1)은 ① ~ ⑦에 응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SQ8-1) 그 일은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표는 1개만)

- ___ ① 전문 · 기술계 직업 (의사/변호사/교원/엔지니어/간호사/작가/디자이너 등)
 ___ ② 관리직 (과장 이상의 관리직/의원 등)
 ___ ③ 사무 · 영업직 (사무원/영업사원/은행원/일반공무원 등)
 ___ ④ 판매 · 서비스 계통 직업(가게주인/점원/외판원/미용사/크리닝/급사/접객/청소 등)
 ___ ⑤ 기능, 노무, 작업직 (공장노동자/전문기술직/건설작업자/운전기사 등)
 ___ ⑥ 농업, 임업, 어업직 (식목업, 조경업 포함)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 ⑧ 잘 모르겠다.

SQ 9 당신의 집은 생활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표는 1개만)

최하층			중			최상층	잘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다음은 친구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 해주세요.

먼저 당신의 친한 친구 4명을 친한 순으로 A, B, C, D로 하여 다음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친한 친구가 4명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4명이 넘더라도 4명만 적어주십시오. 만약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문 4**번으로 가 주십시오.

문 1 (1) A~D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이름을 적는 이유는 응답할 때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D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래의 모든 항목에 응답해주십시오.

	A (↓)	B (↓)	C (↓)	D (↓)
(1) 이 친구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① 남성 ② 여성	① 남성 ② 여성	① 남성 ② 여성
(2) 이 친구와 관계 있는 것에 모두 √ 표 하십시오.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 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 ()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 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 ()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 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 ()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 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 ()
(3) 이 친구와 함께 보내는 장소에 모두 √ 표 하십시오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 ()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 ()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 ()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 ()
(4) 이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가?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 하십시오)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 ()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 ()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 ()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 ()
(5) 평일 수업이외에 이 친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개만 골라 √ 표 하십시오)	① 1시간미만 ② 1~2시간미만 ③ 2~3시간미만 ④ 3~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	① 1시간미만 ② 1~2시간미만 ③ 2~3시간미만 ④ 3~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	① 1시간미만 ② 1~2시간미만 ③ 2~3시간미만 ④ 3~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	① 1시간미만 ② 1~2시간미만 ③ 2~3시간미만 ④ 3~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

문 2 **문 1**의 A~D는 서로 친구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	알고 지내는 사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
(1) A와 B는 서로	①	②	③
(2) A와 C는 서로	①	②	③
(3) A와 D는 서로	①	②	③
(4) B와 C는 서로	①	②	③
(5) B와 D는 서로	①	②	③
(6) C와 D는 서로	①	②	③

문 3 (문 1)의 A~D 이외에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 표는 1개만)

- ___ ① 1명 ___ ② 2명 ___ ③ 3명 ___ ④ 4명 ___ ⑤ 5명
 ___ ⑥ 6명 ___ ⑦ 7명 ___ ⑧ 8명 ___ ⑨ 9명 ___ ⑩ 10명
 ___ ⑪ 11명 ___ ⑫ 12명 ___ ⑬ 13명 ___ ⑭ 14명 ___ ⑮ 15명 이상

문 4 당신은 직접 만나지 않고 이메일이나 문자, 채팅 등 온라인 상으로만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문 1 로) ___ ② 없다 (문 5 로)

문 1 문 4와 같은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표는 1개만)

- ___ ① 1명 ___ ② 2명 ___ ③ 3명 ___ ④ 4명 ___ ⑤ 5명
 ___ ⑥ 6명 ___ ⑦ 7명 ___ ⑧ 8명 ___ ⑨ 9명 ___ ⑩ 10명
 ___ ⑪ 11명 ___ ⑫ 12명 ___ ⑬ 13명 ___ ⑭ 14명 ___ ⑮ 15명 이상

문 5 다른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히 인기가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모두 골라 √ 표 해주십시오.)

- ___ ① 얼굴이 예쁘고/잘생긴 친구 ___ ⑦ 유머감각이 있는 재미있는 친구
 ___ ② 옷을 잘 입고 스타일이 세련된 친구 ___ ⑧ 잘 놀면서 공부도 잘하는 친구
 ___ ③ 성격이 좋은 친구 ___ ⑨ 돈 잘 쓰는 친구
 ___ ④ 리더십이 있는 친구 ___ ⑩ 부유한 친구
 ___ ⑤ 공부를 잘 하는 친구 ___ ⑪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친구
 ___ ⑥ 화끈하게 잘 노는 친구 ___ ⑫ 기타_____

문 6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외면당하는 친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 표 해주십시오.)

- ___ ① 못생긴 친구 ___ ⑦ 공부 못하는 친구

___ ② 옷을 못 입거나 촌스러운 친구
구

___ ③ 성격이 안 좋은 친구

___ ④ 잘 사는 친구

___ ⑤ 잘 못 사는 친구

___ ⑥ 공부를 잘 하는 친구

___ ⑧ 선생님께서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는 친구

___ ⑨ 잘난 척 하는 친구

___ ⑩ 눈치 없는 친구

___ ⑪ 이기적인 친구

___ ⑫ 기타 _____

문 7 여러분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음 문항을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빈칸에 √ 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에게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부 끄럽 거 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 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내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거리낌없이 말한 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내 친구들은 내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①	②	③	④

준다.				
(18) 내 친구들은 내일에 대해 항상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19) 내 친구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0) 내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바로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21) 내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24) 내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5) 내 친구들은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6) 내 친구들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27)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28)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29) 친한 친구라면 무엇이든 같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0) 친한 친구 사이라도 지칠 것은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8 당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문8-1로 가시오) ___ ② 없다 (문9로 가시오)

문 8-1 선생님을 좋아(존경)하는 이유를 무엇인가요.(해당하는 곳에 모두 골라 √ 표 해주십시오.)

- | | |
|-------------------------|-----------------------|
| ___ ① 학생들을 잘 이해해준다. | ___ ⑤ 수업이 재밌다/유머가 있다. |
| ___ ②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 ___ ⑥ 예쁘다/ 멋있다. |
| ___ ③ 늘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다. | ___ ⑦ 인품이 훌륭하다. |
| ___ ④ 실력이 있다. | ___ ⑧ 기타_____ |

문 9 당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문9-1로 가시오) ___ ② 없다 (문10로 가시오)

문 9-1 선생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 | | |
|-------------------------|-------------------|
| ___ ① 학생들을 차별한다/ 불공평하다. | ___ ⑤ 실력이 없다. |
| ___ ② 학생들을 무시한다. | ___ ⑥ 잘난 척 한다. |
| ___ ③ 화를 잘 낸다/무섭다. | ___ ⑦ 너무 차갑다/쌀쌀맞다 |
| ___ ④ 수업이 재미없다/ 유머가 없다 | ___ ⑧ 기타_____ |

문 10 다음은 현재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좋아(존경)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다정한 친구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자상하고 친절하여 가까이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8)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도 대화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나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 11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반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친구에게 잘못 했을 때는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반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하고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을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학교 친구와 먼저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학교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학교 숙제 및 학습준비를 빠짐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학교공부를 예습하고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학교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모든 교과목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학교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아낀다	①	②	③	④
(17)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지킨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쓰레기통에 버린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학교의 각종 게시물, 방송 또는 안내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학교에 대한 일을 선생님들께 직접 건의한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학교에 대한 일을 학생회의 등을 통해서 건의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2 다음 문항은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은 평상시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하십시오.

	절대 용납 할수 없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1) 수업중에 휴대폰 사용하기, 열차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 하는 것	①	②	③	④
(2)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①	②	③	④
(3) 시험 볼 때 컨닝하기	①	②	③	④
(4) 알고 싶다고 해서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기	①	②	③	④
(5) 음식점이나 열차 안 등 공공장소에서 화장하기	①	②	③	④

문 15 당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가족끼리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3) 부모에게 외출장소를 알린다	①	②	③	④
(4) 가족끼리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5)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장래 진로를 늘 생각하며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문 16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길 희망합니까? (√ 표시 1개만)

___① 중학교 ___② 고등학교 ___③ 전문대 ___④ 대학교 ___⑤ 대학원이상

문 17 (문 16)에 응답한 학교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문 18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다니고 있는 곳에 모두 √ 표시 하시오.

___① 학원 ___② 과외공부 ___③ 교육방송 수업(인터넷 방송) ___④ 기타_____

문 19 당신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공부하는 시간(학원이나 과외공부 시간 포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평일 (학교수업이 있는 날) 시간 분

(2)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놀토) 시간 분

(3) 휴일 (학교수업이 없는 날) 시간 분

문 20 당신은 최근 1년간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V표시 1개만)
 ___① 늘 그렇다 ___② 종종 있다 ___③ 거의 없다 ___④ 전혀 없다

문 21 당신은 최근 1년 동안 아프거나 경제적인 문제 이외의 문제로 학교에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V표시 1개만)
 ___① 없다 ___② 1주일 정도 ___③ 2주일 정도 ___④ 3주일 정도 ___⑤ 4주일 이상

문 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해 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에게)				어머니는(와, 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공부와 성적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나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의 친한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23 당신은 (1)~(5)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2)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3) 교사와의관계	①	②	③	④
(4)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5) 생활전체	①	②	③	④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특성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 강태중 · 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 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 김영지 · 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 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 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 김경준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인식 실태」 (11.28)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4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III

인 쇄 2008년 12월 23일

발 행 2008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주)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57-4

ISBN 978-89-7816-756-6(세트)

